

전국 최고 '충남도립파크골프장' 2026년 청양에 문연다

도, 총 230억원 투입... 22만㎡ 부지에 108홀 규모 건립 예정



충남도가 2026년 문을 열 예정인 전국 최고의 명품파크골프장 '충남도립파크골프장' 건립을 위한 설계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파크골프장 내 대한파크골프협회 이전 및 교육센터와 클럽하우스 등을 신축해 청양군 일대를 국내 파크골프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도내에 30개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총 60곳을 운영할 계획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대도 빈틈없이 추진한다.

송부경 도 문화체육관광공장은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충남도립파크골프장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며 "2026년 문을 여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6월 중간보고회에 이어 8월 최종보고회 거쳐 도민의견이 반영된 도립파크골프장 설계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착착'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옛 구봉광산 일원에 위치한 도립파크골프

장은 22만 1494㎡의 부지에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대한파크골프협회 교육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30억원으로, 국비 30억원과 도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용역은 도립파크골프장의 경기장 배치 방안, 시설 규모 및 배치, 경관 등을 설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이다.

도는 36홀 씩 3개 면으로 나눠 각각의 특색을 갖춘 코스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홀에는 페어웨이와 bunker 등을 두고, 경기장 곳곳에 티하우스와 파고라 등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클럽하우스·교육센터 내에는 교육장과 근력 측정 및 운동 처방실, 상담실, 휴게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교육센터에서는 연간 1만 3000여 명이 지도자·심판 자격 검정을 받고, 5000여 명이 지도자보수 교육과 심판 연수를 받게 된다.

파크골프장 외곽에는 파크골프 테마 및 옛 구봉광산 등을 알 수 있는 역사전시관과 판매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 조성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450억원, 부가 가치 유발 187억원, 고용 유발 192명 등이다.

도는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연말쯤 첫 삽을 뜨고, 2025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준공 후에는 2026년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해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메카로서 전국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파크골프장 확충으로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파크골프 기반 확대'를 목표로 도전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예방, 의료비용 감소 등 건강한 고령화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도내 파크골프장은 30곳이 운영 및 공사 중이었으나, 202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신·증설을 실시, 연말까지 30곳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다. 추가로 조성되는 30곳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22년 9곳, 지난해 12곳, 올해 9곳을 신설한다.

도는 상반기까지 285곳을 선정했으며,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나머지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투입예산은 1곳당 도비와 시비 10억원씩 총 300억원이며, 내년까지 모든 공모사업을 완료해 시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송 국장은 "도립파크골프장이 문을 열면 노년층 체육복지 확대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폐광 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전국 최고 명품파크골프장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선관위, CCTV모니터링 열람상황 확인
 세종시선관위(위원장 김용찬/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총 15개의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고, 보관상황 및 열람을 위한 CCTV등을 점검했다.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은 세종시선관위(1층 정문)에서 24시간 외부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세종시, 행정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도시로 우뚝 선다

AI충녕 도입 등 인공지능 활용일선화 · 시민 편의 증진 추진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디지털 기술이 행정에 접목되고 융합되는 속도가 도시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에 앞서 정책을 미리 점검하는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실증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첫걸음으로 시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구비서류 제로화 및 디지털 민원혁신 가속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열고, 디지털 민원혁신 선도 도시로 도약을 전명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자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올해 디지털 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구비서류 제로화로 민원 불편 해소=시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와 구비서류 제로화 협력을

계획 수립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교육을 시작했다. 아울러, 민원 상담원 수준의 답변이 가능한 챗봇서비스인 가칭 'AI충녕'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제는 시 누리집, 민원콜센터의 민원 데이터를 인공지능 플랫폼에 학습하는 단계로, AI충녕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단순 민원 3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플랫폼 기반 공공데이터 서비스 강화=또한, 시는 '세종시타임', '세종엔', '똑똑건강' 플랫폼에 공공데이터를 적용하여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세종시타임은 지난달 15일부터 주민등록 등본분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6종의 전자증명서를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시민증 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세미나 등 행사 시 출입을 인증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민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똑똑건강 앱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시민이 본인의 건강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다.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오늘날간 앱 및 노인 맞춤형 복지정책 거점 시설인 스마트경로당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엔은 초정밀 버스 도착정보, 긴급SOS, 시설물 예약, 여권 대기정보 등 지도 기반의 시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세종엔에서는 AI영상기술을 활용해 놀이터, 이송다리에서 시민체감형 실시간 혼잡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에는 시민의 주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종엔을 활용해 실시간 투표 대기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태성 기자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따른 / 성향, 성격 등



문의) 네이버톡톡 / 인스타 DM
 메일 - clabclab_10@naver.com
 문자, 전화 - 070.8098.1834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

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잉 공급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잉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북북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벅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료에 대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에 대한 보상, 의료사고안정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복기자

대전선관위, 선거벽보 등 선거홍보물 훼손 주의 당부

선거공보 불법 수거 및 선거벽보 훼손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전선관위’)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벽보 훼손 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선거홍보물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지난주까지 관내 총 1,487곳에 선거벽보 첩부를 마쳤고,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각 세대에 발송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은 자신의 정보와 공약 등이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위해 소속 정당명과 기호, 그리고 공약이 기재된 현 수막을 선거구 안의 거리에서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고 선거공보가 불법 수거되는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선거벽보가 훼손되거나 선거공보가 수거되는 일이 발생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철폐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23.8%→62.8% 재외선거 투표율 역대 최고치 찍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시각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7일간 진행된 투표에서 재외유권자 14만 7989명 중 총 9만 2923명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0년 총선 당시 23.8%에 그쳤던 것

과 비교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12년 처음 재외투표가 도입됐는데 그해 45.7%, 2016년 41.4%, 2020년 23.8%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가 이번에 확실히 늘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 4만 7647명(투표율 62.8%), 아메리카 총 9만 2923명(56.5%), 유럽 1만 4431명(73.5%), 중동 2904명(74.0%), 아프리카 1600명(79.3%)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재외투표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투표는 코로나19 팬데믹도 있었고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국가도 있어 낮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김정환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토론회 개최

4월1일,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토론회가 아산시 기록 포럼 주관, 아산시 기록포럼 연합사회, 아산시 민중 북음화운동본부, CTS 아산시 운영이사회, CBS 아산시 운영이사회, CBMC 운영자회, 나눔과기쁨아산시지부, 라이프프로씨딩지부, 아산시문화예술협회, 충청지역교회사연구회 공동주최, 아산시기록포럼연합회, CTS중부방송, 아산기자클럽공동체 후원으로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됐다.

오후 6시부터 6시50분까지 아산시 ‘후 선거구 관측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민권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를 벌였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아산시갑선거구 북기왕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영석 국민

의 힘 후보, 조덕호 새로운미래 후보가 토론회를 벌였다.

사회는 아산시기록포럼 정춘화 공동회장이 진행했으며, 후보자들은 출마의 변과 국가와 아산시 발전을 위한 대표 공약과 실행에 대한 발언으로 시작했다. 이어 공동질문 10가지를 질문했다.

①대한민국 발전에 끼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견해, ②아산시 균형발전을 위해 아산시시장과 주요 기관대표들과의 소통과 협력 방안에 대한 견해, ③아산시 문화유적(3.1운동 발생지, 운문선 대통령 생가, 애국가 작사자 윤치호 등)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발굴 및 보존 노력이 기념관 건립 등 대내외

적 홍보를 통한 아산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견해, ④동성애 찬성, 역차별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 찬성, 특정 종교 폐쇄법 등은 인륜과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⑤미군 철수, 한미방위조약 폐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한 견해와 안전한 국가 안보를 위한 견해, ⑥자녀의 양육 부담 해소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 시설 설치 관련법 제정에 대한 견해, ⑦아산시와 접경 지역인 천안, 평택, 당진, 예산, 공주 등과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한 계획은 ⑧아산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계획과 목표 달성에 대한 계획 ⑨차세대들의 행복을 위한 초·중·고생들의 교육지원과 사회 초년생들이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 ⑩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은 등 열까지 질문이 있었다.

답변에 나선 후보들의 토론회를 마련해준 아산시 기록 포럼과 주최 후원 단체에 감사드리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복지, 경제 활성화, 교통 및 기타 시설 구축 등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양승조 후보 청년위한

10대 공약 발표

제22대 총선 홍성·예산 국회의원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담긴 공약발표문에 따르면 양승조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라고 청년공약의 목표를 제시한 뒤, 이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복합주거타운 조성 ▲내포 공공기관 연계 인턴 지원 ▲월3만원 대학생 교통카드보급 ▲월2만원 대학생 통신포함료 보급 ▲청년 우울증 단체보험 가입 ▲농촌 유희시설을 이용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 ▲대학생 취업정보센터 신설 ▲청년 창업터온 조성 ▲유튜브 제작 스프루디오 조성 ▲청년 신용회복 지원 등이 담겨있다.

특히 내포 공공기관 연계 인턴 지원을 설명하며,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약속”이라고 주장한 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양홍규 후보 ‘이장우 시장의

대전도시철도 계획 환영’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는 2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전날 발표한 대전 도시철도 3·4·5호선 계획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특히 양홍규 후보는 “3호선은 신탄진-둔산-부사-석교-가오-산내를 연결하는 총연장 29km로 5개 구를 남북축으로 연결되어, 둔산의 발전뿐 아니라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며 “5호선은 대전컨벤션센터-정부청사-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대전 오월드를 연결되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CTI(충청권광역급행철도) 노선 가운데 정부청사역이 들어서면, 충청대방문이 완성될 것”이라고 평했다.

양 후보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도시철도계획은 수도권 1극체제를 해체하여,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고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말하면서 “22대 총선에서 승리하여 이장우 시장과 협력 하여 대전철도철도 중심 교통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의국입법정보’ (2024-3호, 통권 제24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일 ‘최신의국입법정보’ (2024-3호, 통권 제241호)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택시장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사회주택이란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미국은 저가 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을 주로 저소득층에 제공해왔으나, 최근 대두된 사회주택 정책은 저가 임대주택보다 진입가능한 개념으로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주

법에서는 사회주택의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건설의 자금 조달, 주택의 개발 및 관리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임대수익의 일부는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하여 서울시 등 지자체 조례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의 사회주택 입법례가 우리나라 사회주택 확대와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논의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유성구 선거유세 ‘후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지역 앞에서 유성구갑 윤소식 후보와 유성구을 이상민 후보의 지원 유세를 가졌다.

유세현장에서 한 위원장은 “대전은 역사의 굽이굽이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낸 곳”이라는 평가를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전을 발전시킬 후보들”,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 나라를 사

랑하는 사람들’로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을 소개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한뜻으로 힘을 모았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다양해지고, 상식적이고, 유연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의 빨간 잠바를 입고 있다”는 평가를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윤소식 후보는 범죄자들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후보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을 잡고, 공익을 실천하려는 인생을 산 윤 후보, 대전에서 경찰청장을 지냈고, 대전을 잘 알고 대전에 열정을 가진 선택받은 후보”라며 지지를 보였다.

한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건네 받은 윤 후보는 “제가 만난 많은 주민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당부와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유성(정)치인이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윤 후보는 “586운동권 좌파 세력이 20년 이상 정치를 잡았다. 이번 총선은 이런 세력을 정치에서 몰아내 퇴출시킬 총선”이라는 평가를 청중의 호응을 끌었다.

한 위원장은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에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뜻을 남기는 것으로 선거유세를 마쳤다.

이정복기자

정진석 후보 <격차 해소 공약 시리즈 ④> 발표

충청 메가시티 핵심 인프라 구축 위한 ‘교통 격차 해소’ 공약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는

2일, <격차 해소 공약 시리즈 ④> 충청메가시티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통 격차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진석 후보가 발표한 ‘교통 격차 해소 공약’은 ▲실시간 요청에 응답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유구-아산(국도39호) 도로 확포장 사업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충청산업문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정진석 후보는 “인구가 적은 지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지역 특성상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며 “현재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노약자와 같은 교통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진석 후보는 “제2경부 고속도로와 함께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이 올해 말 완공된다”라며 “수도권을 떠날 때만 있는 아산과 공주를 연결하는 국도3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추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허태정 공동선대위원장, 장종태 후보 지원 유세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상임공동선대위원장(전 대전시장)이 2일 장종태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허태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 한민시장과 도마시장에 차례로 “중요로운 봄을 기다려야 할 시기에 장종태 후보의 유세에 함께 우리 동맹을 격정하고 부끄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위원장은 이어 “장종태는 서구의 작은 현안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후보로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일꾼”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인 장종태 후보를 서구민 여러분이 확실하게 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정치꾼이 아닌 민생을 챙기는 ‘행정혁신가’ 될 터”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후보

대전 중구의 향후 미래를 이끄는 4월 10일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어느때보다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대전투데이에서는 이번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서면으로 릴레이 인터뷰 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심각한 사회적 난제를 풀기는커녕, 부지급제로 지방중세와 가난한 사람의 중세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없애고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시대를 말하면서 오히려 지방을 죽이고 지역 간 경쟁시키는 일은 상생의 정치가 아닌 갈등의 정치일 뿐입니다. 희생자는 결국 지방일 뿐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중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구청 관리자’가 아닌 ‘행정 혁신가’를 원합니다. 그밖에 그나름, 절마다 등장하는 정치꾼이 아닌 민생을 챙기는 일꾼을 원합니다. 대전의 역사를 간직한 중구가 더 이상 낙후된 원도심이 아닌 장사잡되는 중구, 일자리와 안전한 도시, 주민과 공무원이 대안을 만드는 지방자치의 표준이 되길 원합니다. 중구에서부터 지방행정의 기본좋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대전 중구 지역의 현안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요.
중구는 대전의 원도심으로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전통적인 중심지입니다. 반대로 도시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대전지역 평균을 상회하는 노령화(22.7%)가 진행중이고 장애인 인구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 인적, 물적, 자연,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 빈곤이 크게 느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이 제시되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개발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던 중구의 발전전략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시민이 시민을 돌보고, 함께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누구도 소외와 차별 받지 않는 지자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구의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구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 주민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새로운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의 길을 찾았던 시민사회 경험과 보편적 평생학습과 정부혁신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행정을 통해 중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중구청장 선거 공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많은 주민들이 중구발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중구의 미래를 위해 보육과 청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문제가 된 지금 중구에는 민간 산후조리원 조차 없습니다. 우리 지역 산모들 누구나 최고의 시설을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일하며 생활 할 수 있는 중구, 도시의 미래를 위해 중구가 변화해야 합니다.

최근 중구에는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과 청년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요도도 많습니다. 평생교육은 특정 연령보다는 전 주민 참여가 바람직합니다. 중구 평생학습관을 혁신 인재 양성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중장년(만학도) 위주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어린이부터 청년층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대학과의 협력으로 저변을 대폭 넓혀겠습니다.

‘어린이 도시건축학교’ 및 민집 활용, 공동체사업, 재생사업, 업사이클 공방 등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차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구적으로 선지원 후속변형 취창업 통합플랫폼을 운영해 2030 청년의 가능성을 대전의 내일, 대한민국의 내일로 연결하겠습니다.

중구는 대전지역에서도 어르신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영화 보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곳도 마땅치 않기도 합니다. 차 한잔 1000원, 영화관람료 2000원, 국밥 3000원인 극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실버영화관, 추억의 DJ 다방 등 어르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일자리·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노년층을 채용해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고, 사회공헌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과 함께 중구를 가꿔 가겠습니다.

▲중구청장 재선거의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중구 주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태껏 없던 일이 중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말, 국민의힘 소속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구 행정은 갑작스런 중구청장의 부재로 중구 공식사회는 물론 지역 사회가 크게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다. 구청장 부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청장 대행체제로 부구청장 인사체제가 됐지만 대전시는 부구청장의 구청장 대행체제로 행정 공백은 안정화 시키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2개월 만에 구청장 권한대행이 3명째 바뀌는 등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구 주민들을 더 분통터지게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반복하고 취임 두달도 안돼 부구청장을 그만두고 선거에 뛰어들어는 것도 모자라, 특정정당의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되면 임당하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재선거 비용으로 중구청 현재 약 8억 4천 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진정 중구민이 원하는 구청장은 누구입니까?
이번 중구청장재선거는 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후보님이 중구청장에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민주당의 인재영입 기자회견 당시 지역을 죽이는 정치에 대응해 주민이 행복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중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의 비전을 통해 중구 발전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주민 중심의 생활지체 실현을 통해 동네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조달의 지역화와 지역화폐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키우겠습니다.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개발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총행복 우선주의를 구현해 새로운 지자체부를 만들겠습니다. 참여형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중구의 역사·문화 자산을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 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도시 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지요.
제가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도 대도시이지만 초고령 사회가 되어 소멸 위기를

겪는 방식으로, 누구도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는 지자체부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조달의 지역화와 지역화폐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키우겠습니다.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개발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민총행복 우선주의를 구현하는 새로운 지자체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더 큰 민주주의, 성장하는 민주주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신산업과 구산업 간 충돌과 같은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분명하지만, 제대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난제의 상당 부분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 외도 관련돼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결정도 못하는 현실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보수세력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정치는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단임제대통령-소선거구제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군인-관료-재벌-정치의 순이던 정책결정권자의 지위가 현재 관료-법조-재벌-정치의 순으로 변화된 이상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료집단은 주권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탓에 왕왕 ‘위험의 공공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선 변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성 정치권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일상민주주의, 과정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의 일터와 삶터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민주권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해 새로운 정치를 도전하는 도전자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운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도전하는 입장이지만 중구구정을 통해 실현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고령화,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사회적양극화, 지역소멸의 위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난제는 문제 규명도 어렵고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찾고 해결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를 통해 새로운 중구의 비전을 찾고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당입니다. 잠재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회복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함께 사는 민주주의입니다. 주민의 행복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입니다. 담담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정복 기자



겪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이중화로 인한 지역소멸과 폐쇄화가 심각합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학교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미래가 어둡기만 합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대안과 실천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방식의 지자체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민이 시민을 돌보고 함께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 동 정 ●

추진상황 보고서



박희조 동구청장= 3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88대 핵심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참석.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식



서철모 서구청장= 3일 오후 2시 서구청 갑천누리실에서 열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식 참석.

자문위원회 회의



정용래 유성구청장= 3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유성국화전시회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부모 교육 현장



최궁구 대덕구청장= 3일 오전 10시 대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부모 교육 현장에 참석.

대전 동구동락 축제 본격 준비

동구 부서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회 대전 동구동락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서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 부서장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부서 연계사업, 프로그램, 편의시설 보강, 축제 참여율 제고, 콘텐츠 강화 방안 등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제2회 대전 동구동락 축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대전 동광장로 및 대동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는 동구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정체성인 '여행하기 좋은 곳'과 '소재'를 활용한 축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 동구동락 축제'는 작년 첫 개최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낭만여행'을 주제로 15만 명이 방문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구 대표 관광지 소재품의 입지를 견고히 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는 기존 축제에서 보여줬던 사진찍기 좋은 곳 소재품을 넘어 소재품의 근원인 대동천을 활용한 주제공연을 개발하는 등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강화하고, 선별된 먹거리 및 주제별 공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야간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화려한 야간경관 거리 구성과 동구 관광지를 연계한 특화관광상품 개발 등 이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전 동구동락 축제를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가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며 "동구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정체성과 소재품의 장소성을 활용해 획기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선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市 '양자기술 리더스 포럼' 개최

대전 양자 산업생태계 확장·활성화 방안 모색



대전시는 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양자 분야 전문가 및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양자기술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양자융합센터, 대전테크노파크와 공동 기획했으며, 연구소대학에 집중된 양자 기술을 산업계로 연계하고, 대전 양자 산업생태계 확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내 양자산업 선도 기업인 LG전자, KT, SKT, 네이버 클라우드를 비롯해 고등과학원(KIA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포스코홀딩스 등의 양자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양자기술 시장과 기회(이우비 박사영 대표)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NIA 김영희 팀장) ▲양자컴퓨팅 동향 및 양자테스트베드(ETRI 주정진 본부장) ▲대전시 양자산

업 육성 방향 및 추진 전략(대전시 한선희 실장) 순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미래양자융합센터 김효실 센터장을 좌장으로 LG전자, KT, SKT, 네이버 클라우드, 포스코홀딩스, 키큐티코리아 관계자가 양자컴퓨팅 중심 양자산업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에는 국내 양자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관이 집중돼 있으며, 카이스트 양자대학원 등에서 양자산업에 특화된 고급 기술인재를 매년 육성해 출하고 있다"라며 "최고의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양자기술이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산업으로 나아가는데

대전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국내 양자기술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국방과학연구소(ADD), 나노종합기술원(NNFC),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국내외 양자관련 기업 유치, 정부 공모사업 대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양자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향후 국가양자클러스터 지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선 기자

올해 55,691개 일자리 창출 市, 고용률 68.0% 달성 목표

지역일자리 공시제, 2024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수립

대전시는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기업사립일자리가 모이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

계획에는 5대 핵심전략, 12대 추진과제, 176개 일자리 세부사업이 담겼으며 올해 4,972억 원을 투입해 55,691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15~64세) 68.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일자리정책 추진 방향은 ▲첫째, 청년이 선호하는 고용 창출에 주력하여 고용유지, 지역적 착까지 이어지는 고용생태계 구축 ▲둘째, 고용서비스 강화를 통

한 노동시장 미스매칭 완화 ▲셋째,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서비스 중심 산업구조에서 탈피, 첨단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 고도화이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해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작년부터 어려운 경제 여건에 봉착해 있지만, 대전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대전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동네서점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서점 모집

서구, 일상 속 문화공간 확대 기대

서구구청장 서철모가 대전시 지역 서점 인종제 보유 서구 관내 서점을 대상으로 지역 서점들의 특색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동네서점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에 따르면 2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이달 말 참여서점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선정된 서점에는 독서 모임, 강연, 북토크 등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료가 지원된다.

서구는 서류심사를 통해 계획의 충실도, 운영 경험과 수행 역량과 서점의 진행 공간, 독창성, 구체성 등을 평가해 서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철모 구장은 "동네서점 활성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

해 구민들에게는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지역 서점에는 이용 활성화 및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도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책 읽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동구 하늘 위 월드컵 '드론가족축구대회' 개최

27일 열려, 미래형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최근 다양한 드론 프로그램 운영으로 드론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전 동구에서 드론을 활용한 축구대회가 개최돼, 드론족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오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원에서 미래형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동구 드론가족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드론축구'란 완벽하게 보호된 드론 공을 이용해 공중에 원형으

로 매달린 골대에 드론을 통과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미래형 스포츠활동이다.

이번 대회 참여대상은 동구 주민이면서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가족으로, 총 16개 팀 중 13개 일반 참가팀은 동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배려 계층(한부모, 차상위 등) 3개 팀은 별도로 모집한다.

대회진행은 16개 참가팀 조별 예선전 후 본선 8강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대회 부대 행사로 드론 항공촬영 체험과 드론 전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드론가족 축구는 박진감 넘치는 재미와 창의력 개발에 좋은 교육적 가치, 승패가 갈리는 이야기와 서사 등이 풍부해 참여 가족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드론의 성지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드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042-259-7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돌봄건강학교 벤치마킹 줄이어

대덕구,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호평

대덕구(구청장 최중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대덕구돌봄건강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대덕구의 특화사업인 대덕구돌봄건강학교는 지역 내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욕구 충족 및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노인 친화형 멀티플렉스(multiplex)' 공간을 마련, 다양한 건강·돌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돌봄건강학교는 대덕·3개의 거점복지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는 △공유주방 및 카페 △상담실 △놀이실 △교육실 등 각 특성에 맞는 공간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와 운동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의료 및 건강·돌봄 욕구 증가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통합상담실과 힐링 테이블, 공동식사를 운영해 어르신들이 함께 배우고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대덕구의 우수한 돌봄사례를 배우고자 지난 3월 22일 제주도 등 6곳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내방했으며, 3월 27일에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대전지회와 의뢰로 돌봄건강학교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17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돌봄건강학교를 벤치마킹하고자 대덕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중규 대덕구청장은 "21세기형 어르신 이용시설인 '대덕구돌봄건강학교'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 내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사업 통합지원 시범도시'로 선정돼 전국 최초로 대덕구-돌봄건강학교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중구,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문창공공도서관(가칭) 건립 예정

중구(중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문창공공도서관(가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의 유휴부지에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보건, 복지, 돌봄, 평생학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육부 지원금 등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문창초등학교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 도서관 내에는 열람실, 자료실, 다목적 강당, 교육공간, 문화공간, 늘봄교육공간 등 여가와 교육의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빈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육청 건립 개편과 지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과 학생을 위한 최적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성구, 온천로를 문화와 예술로 물들이다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2일 온천로 일원에서 문화예술동아리의 각종 공연과 다양한 전시활동을 선보일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은 문화예술동아리의 지속적인 활동기

반을 마련해 온천로 일대를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집수령에 신청한 32개 단체 중 16개 동아리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문화예술동아리 대표 및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내용, 보조금 회계교육,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문화예술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활동으로 온천로 일대가 더욱 생기 넘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성산책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여 모두가 함께 즐

기는 문화도시 유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왔으며, 올해 선정된 문화예술동아리는 연말까지 대중음악악단연주회(공예, 서예,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동 정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3일 오전 9시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기념행사



최재구 예산군수= 3일 오전 9시 30분 4·3만세공원에서 열리는 제26회 한내장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

자매결연 협약식



이용록 홍성군수= 3일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한국새생명복지재단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추진

예산군은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 자료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주택 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소유권 및 토지이용 등 변동 사항이 잦고 대다수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이다.

이로 인해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과세 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ٹ화한 대장 관리가 필요할 실정이다. 이에 군은 △납세자 소유권 변동, 건축물 신축·중축·용도변경·별실,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 사항에 대한 자료정리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 사항의 정확한 반영 등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 자료를 구축해 지방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 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화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

세종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훈련비를 지급,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세종장애인체육센터에서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대상으로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문체육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발된 우수선수 10명은 ▲신익희(사이클, 노르딕스키) ▲김재훈·박현희(펜싱) ▲이현(아유도) ▲김정남·조정두·김동일·김고은·김연미·권상현(사격) 등 총 10명이다.

이들 우수선수에게는 훈련비 지급 규정에 따라 AA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으로 분류되어 훈련비가 차등 지원된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은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위해 우수선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갈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비응급환자 119 신고건 감소 추세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중증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감소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 문제 우려가 큰 상황 속 시민들의 배려로 지난해 대비 세종시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건이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소방본부부부장 장겨래에 따르면 119구급대 이송 건수는 지난해 2월 20일~3월 20일 1,702건에서 올해 동기인 1,532건으로 170건 줄었다.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 속 비응급환자의 119구급 이송이 꾸준히 요청되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 등에 심각한 문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가 확산하면서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전환했다.

또 심정지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심정지 26건, 심뇌혈관 140건, 중증외상 17건 등 모두 183건이었던 중증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올해 심정지 15건, 심뇌혈관 138건, 중증외상 5건 등 총 158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각종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소방본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와 인근 시도의 의료계 집단행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와 소아의료 등 필수 의료에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이송 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장겨래 세종소방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에서도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고혈압·당뇨 운동교실 운영

예산군보건소 건강지표 분석 결과 제공

예산군 보건소는 오는 8일부터 군민 중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고혈압·당뇨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27일 사업 대상으로 모집된 20명을 대상으로 '탄성 질환자의 건강·운동·영양 바로알기' 교육과 함께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개인 기초 검사(혈액, 골밀도, 체성분) 결과를 토대로 의사 상담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운동교실 추진 결과 14명이 성공적으로 수료했으며, 평균 수축기 혈압 5mmHg 감소, LDL 콜레스테롤 1.2% 감소, 골격근량 0.7kg 증가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탄성 질환자는 근육 강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으로 올바른 운동 방법을 배우고 습관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화 기자

“리무진 시티투어버스 타고 세종시 ‘봄꽃 여행’ 떠나요”

4월 첫 주 주말이틀간 봄꽃힐링투어 진행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이달부터 봄꽃힐링투어 신설, 주야간 코스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시티투어를 선보인다.

세종시투어는 세종시관광협회가 위탁운영을 맡아 지난 달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2개의 정규코스와 4개의 특별코스가 운영된다.

모든 코스는 조차원역과 오송역,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각각 승차해 주요 관광지 등을 차례로 둘러본 후 승차역점으로 하차할 수 있다. 운영일은 목·금·토·일요일 주 4회, 로일 1회 운행한다.

올해 시는 1종리무진 버스를 활용해 진행되는 시티투어의 야간 코스(오후 1시~8시)를 신설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하는 주간 코스도 일부 코스 개편을 통해 이용객들이 세종시 곳곳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정규코스인 신도심 중심의 '행복도시투어'는 대통령기록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세종수목원, 이음다리 등 도심 속 명소를 차례로 방문한다.

'청춘도시투어'는 베이트리파크, 조차원 전통시장, 교과서 박물관 등 여유로움에서 생동감 있는 구도심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정규코스 이외에도 ▲봄꽃힐링투어 ▲천안연계투어 ▲역사문화투어 ▲교과서투어까지 4

개의 특별코스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4월 첫 주 주말인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운영하는 봄꽃힐링투어는 고북자연공원의 산책길, 벚꽃과 조차원 전통시장, 조차원 벚꽃길을 거쳐 배아트리파크까지 봄나들이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천안연계투어는 대통령기록관을 시작으로 천안독립기념관 등을 둘러볼 수 있고 역사문화투어는 영평사와 흥남서대, 부강성당 등을 방문한다. 교과서투어는 이음다리와 NH 홍보관, 조세박물관 등 교과서에 등장하는 장소 위주로 구성했다.

시티투어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 여행정보를 통해 가고 싶은 코스를 확인한 뒤 시 관광협회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선은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이며 6세 미만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세종 시민과 장애인, 65세 이상 등은 50% 할인된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세종시 주요 관광지의 낮과 밤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정규코스에 야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관광협회(☎044-867-6919) 또는 시 관광진흥과(☎044-300-583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충남도, 잿더미로 변한 땅에 새 희망 심는다

식목일 기념 희망의 나무 심기...

대형 산불 이후 첫 산림 복구 추진

충남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큰 불로 민둥산으로 변한 홍성군 서부면 일원에서 다시 푸른 산을 만들기 위한 첫 나무심기에 나섰다.

도는 79회 식목일을 맞아 2일 홍성군과 함께 홍성 서부면 양곡리 산불피해지 일원에서 대형 산불 이후 첫 산림 복구 사업으로 '식목일 기념 희망의 나무 심기'를 추진했다.

양곡리 일원은 지난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해 1337ha 규모의 산림 피해를 입은 곳으로, 도와 군은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사라진 숲에 희망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도내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 총 1799.4ha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면적은 홍성지역이 1337ha로 가장 컸고 금산 242.9ha, 당진 98.5ha, 보령 97ha, 부여 24ha 순으로 집계됐다.

산림작물은 물론 농작물, 가축, 낫개 나무 등 산림의 기능에 맞는 적절한 수종과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태홍 지사와 홍성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관계 공무원, 산림단체, 주민 등 350여 명이 3ha 산림에 편백나무

사유 시설 등도 피해가 컸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전파·반파 등 주택 63채가 피해를 입고 이재민 113명이 발생했다.

도는 주택 및 농·축·임업 피해를 복구하고자 지난해 성금 모금을 추진해 62억 원의 국민 성금을 모금하고 1·2·3차에 걸쳐 피해 규모별로 성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도는 산림 피해지 복구를 위해서 피해지역 5개 시군에 74억 원을 투입해 산림 497ha를 복구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319ha, 2026년에는 484ha를 복구한다.

산지가 안정화되고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편백나무·백합나무·낙엽송·소나무·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헛개나무 등 산림의 기능에 맞는 적절한 수종과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태홍 지사와 홍성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관계 공무원, 산림단체, 주민 등 350여 명이 3ha 산림에 편백나무



4500그루를 심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나무 사랑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나무 등 6종 총 680그루를 나눠주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산불 조심"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1년 전 유래가 없던 역대급 산불로 1300ha의 숲을 잃었다. 1년 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심기 위해 다시 모였고 여러분과 심는 4500개의 묘목이 이곳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오늘 3ha를 시작으로 3년 안에 피해지 전역에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식목일 행사에

그치지 않고 3년간 170여 원을 투입해 서부면 산림을 되살려낼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불 감시체계 구축, 산불 소화 시설 및 사방림 조성 등 철저한 예방·대응으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해빙기 주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안전점검 실시

예산군, 산지전용·개발행위(5000㎡ 이상) 대형 사업장 대상

예산군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 말까지 1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주요 개발 행위 허가 대상지에 대해 사면 붕괴 및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절·성토 구간의 붕괴 등 공사 부지에 안전 문제 및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며, 이에 군은 3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 발견 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은 산지전용·개발행위(5000㎡ 이상) 허가지에 대해 진행했으며, △용

벽·축대 등 대형 구조물 상태 △대규모 비탈면(절·성토)의 구조물 설치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낙석 방지 시설물 및 위험 표지 설치 여부 △토사 유출 유무 △기타 허가(협의) 조건 준수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 군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재해 우려가 있거나 안전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은 안전 대책 계획서 수립 후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대규모 개발 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적합하게 시공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주요



개발 행위 허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주변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 군민 인

명 및 재산 피해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화 기자

홍성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추진

올해부터 연령 제한 없애고 소득기준 완화

홍성군은 지난해 7월 첫 시행되어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 사리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HUG, HF, SGI)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반전세, 보증부월세까지 포함해 지원하여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 가입(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그 외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

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및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만다.

복합한 허가건축과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군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우리/동네

천안개인택시업계 “천안콜버스 운행 중단 촉구”

택시업계 “사업 전 소통과정 없어”...‘전면 폐지’ 요구

개인택시천안시지부가 2일 천안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해 12월부터 천안시가 직산을 일원에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천안콜버스)의 운행 중단을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서 개인택시지부는 "콜버스로 생존권 택시 수익이 줄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서 "지난달 박상돈 천안시장 면담을 통해서 시가 수신, 상남, 병천의 추가 콜버스 투입은 절충을 약속한 가운데 이들 지역에 운행하려 했던 콜버스를 5대를 직산에 투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지부는 천안콜버스 운행이 버스업계에 특혜를 제공하고 택시업계 생존권은 사지로 몰아 넣는 정책이라고 규탄하며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천안콜버스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선과 운행 시간



표에 상관없이 승객이 호출하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방식이다. 오는 6월까지 시범적으로 운행한다.

중 사업비는 4억원이다. 현재 5대가 서북구 직산·성환을 일대에서 운행 중이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하다. 시는 시범사업 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 기간과 운행 대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간은 6개월, 대수는 5대 늘어난 10대다.

이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날 운

천안시는지난 3월 5일 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택시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택시정책위원회는 '천안시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김석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일반택시·개인택시·운수종사자 대표, 유관기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 새로운 택시 정책 도입, 서비스 개선, 택시총량제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5년부터 적용될 택시총량제 조사, 행복복 배차방식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석필 부시장은 "운수업계와 시민이 만족하는 택시 행정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동정

용역 착수 보고회



박상돈 천안시장 = 3일 오후 3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리는 '성성호수 공원방문자센터 영상관 구축 및 미디어아트콘텐츠 운영 착수 보고회'에 참석.



천안시, 천안형 디지털

인재 육성 나선다

천안시는 지난 1일 천안형 디지털 인재육성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디지털 역량강화에 나선다.

천안형 디지털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천안시 거주 청년 또는 천안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교육과 실리코넬리 해의 인턴십 등의 기회를 제공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실무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모를 거쳐 최종 선발된 1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커리큘럼, 멘토단 등을 소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기술(CT)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의 초급과정을 시작으로 40명을 선발해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 중급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최종 5명을 선발해 실리코넬리에 위치한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천안형 디지털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참여자 100명 중 최종 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천안시 청년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충남중기청, 아산 '배방 필하우스 리버시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추천세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배창우, 이하 충남중기청)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배방 필하우스 리버시티'(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57,157번지)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이하 특별공급) 추천세대 신청·접수 받는다.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대상 주택 추천 세대수는 20세대(예비 100세대)이며, 9일까지 신청·접수받아, 5월 1일 추천 및 예비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시스템(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추천자 선정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의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수 등이 있고, 가점과 관련된 증빙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천안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첫 발 내딛다

자율주행 실증사업 등 연계로 미래 모빌리티 정책 선제적 대응

천안시가 미래 모빌리티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도전한다. 시는 2일 교통, 문화, 환경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최적의 시범지구 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연구용역'에 착수

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 규제의 특례를 받아 자율차 운행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용역은 약 6개월 간 소요되

며 특화된 서비스를 발굴하고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의 사전 다량성, 관련 인프라 조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의 기본 구상안 등을 검토한다.

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후속으로 자율차 시범지구의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자율차 실증사업 연계 추진 등 국가 미래 모빌리티 정책에 선제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경쟁력을 검토하고 운영을 위한 방안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교통분야는 시대를 초월해 급속하게 성장하는 만큼 시범운행지구 시너지를 위해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사업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출동! 클린특공대' 운영

다음달 세탁 전문매장 정식 개소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환경 취약가구 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출동! 클린특공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임대아파트 인접지인 동남구 구성동에 자활기금 1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세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활사업단 매장을 조성

하고, 모집한 근로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다음달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시는 자활사업단 매장을 취약업종에 필요한 전문적인 세탁·정소기 등 습득이 용이하도록 상업용 세탁기, 건조기, 신발 세탁·건조기 등 실제 세탁매장과 동일하게 조성한다.

자활사업단 참여자에겐 한국자

활복지개발원의 세탁기능사, 정리수납전문가 과정 참여를 제공해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보장하고, 자격 취득 후에는 지역사회에 특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읍면동 희망마을지원단과 장애인, 노인 등 세탁 및 청소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환경 취약가구를 발굴·연계해 전문적인 토털케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순 복지정책과장은 "근로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가구에 청소와 세탁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활복지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친환경 식기세척 사업단 등 조건부 수급자 152명을 대상으로 7개분야 13개 사업단을 제공해 탈수급을 통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천안시-제이케이코어, 비대면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구축 강화

차세대 스마트 통합 모니터링 장비 70대 무상교체



천안시가 제이케이코어와 함께 비대면 노인의료돌봄 시스템 구

축 강화에 나섰다. 시는 제이케이코어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돌봄 추진을 위해 차세대 '스마트 통합 모니터링' 장비 70대를 무상교체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통합 모니터링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심박수나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이상이 생기거나 응급상황 발생시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체계이다. 시는 2021년부터 스마트 통

합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교체한 차세대장비는 3차원 모델로, 기존 장비는 실내 움직임만 확인 가능했으나 휴대폰 위치추적과 어플을 통해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 위치 정보가 관리자와 보호자에게 전송되며 이상 발견시 조치할 수 있도록 기능이 향상됐다.

김창준 제이케이코어 대표는 "어르신들의 각종 상황별 패턴과 행동을 예측한 데이터를 통해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처에 활용 가능

할 뿐 아니라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은 "비대면 돌봄사업은 앞으로의 노인 복지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상으로 장비를 교체해 준 제이케이코어 김창준 대표에게 감사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신안동행정복지센터-백석대 보건학부 '지역 사랑나눔 건강 업무협약'

건강취약계층 대상... 물리치료, 구강 위생관리 등 건강관리 지원

천안시 신안동(동장 채희권)은 2일 백석대학교 보건학부(학부장 김효진)와 '지역 사랑나눔 건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석대학교 김효진 보건학부장을 비롯해 이재준 대외협력 본부장, 봉사활동을 추진할 보건학부의 3개 학과 봉사 지도교수인 정성훈·이기훈·홍수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백석대 보건학부 봉사단은 월 2회 지역주민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노인, 장

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눈운동, 구강 위생관리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김효진 학부장은 "대학 3개학과 교수님 및 학생들이 합심해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권 동장은 "노년인구와 대학이 많은 신안동 특성을 반영한 이번 관학협력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건강하고 활기찬 신안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 긴축재정 및 운영효율화 등

비상경영체계 전환 선포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순천향대 천안병원(병원장 박형국)이 1일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이날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병원경영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긴축재정 및 운영효율화 등을 통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천안병원 임직원은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박형국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중간 관리자, 노동조합 최미영 위원장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경영 현황 및 비상경영체계 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박형국 병원장은 "매일 수억 원의 적자행진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새병원 완공 및 감염병전염병원 착공 지원은 물론 임금 지급마저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난이 1개월만 더 지속되거나 비상진료체계마저 무너진다면 곧바로 병원 존립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교직원들의 이해와 위기 극복 동참을 요청했다.

설명회를 마친 후 병원과 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영난타개를 위해 노사가 함께 진력할 것을 결의했다.

최미영 노조위원장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전에 모두의 생존을 위해 함께 나서자"고 촉구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서북구보건소, 개학 맞아 초·중고생 대상

흡연예방 '골든장학퀴즈' 운영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는 개학을 맞아 초·중고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 예방교육을 신청받아 서북구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 지난 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흡연예방교육은 흡연 시작 연령대가 낮아지고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져 평생 및 중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신규 흡연자 진입을 방지하고, 조기 금연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건강행태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담배에 포함된 중독성 물질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골든장학퀴즈'는 눈높이에 맞는 흡연에 대한 문제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특별 활동으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참여형 수업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개인에게 소정의 선물이 제공된다.

한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은 서북구 보건소 건강생활팀(041-521-5996)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 딸기 농촌 지도자회, 딸기 178kg 천안시복지재단 후원 천안딸기 농촌지도자회(회장 박재영)은 지난 1일 천안시 아동·청소년 및 한부모취약계층을 위한 딸기 178kg(270만 원 상당)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에 전달했다.



권정화 석정, 나눔냉고 이용자에 따뜻한 한끼 제공 부성2동(동장 이계자)은 2일 권정화 석정(권정화 대표)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한끼 제공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정화 석정은 부성2동의 '행복채움 나눔냉고' 행사에 맞춰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갈비탕, 차돌냉장찌개 등 다양한 음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봄 행락철 맞아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가 최근 포근한 봄 날씨로 바다를 찾는 활동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주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회 대비 시연회 개최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1일,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전술분야 충남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자체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류일희 소방서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그동안 익혀온 전술을 확인·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산소방서,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일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일환으로 급식소, 대규모 점포 및 일반 음식점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해 나갔다.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업용 주방은 일반 가정 주방보다 기름 사용량이 많아 후드와 덕트 등에 기름때가 쌓일 가능성이 높고, 강한 열원으로 인해 착화 위험성이 높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서의 주장이다.

김성찬 서장은 "주방은 쌓인 기름 등 발화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기 취급이 잦은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와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산소방서, 후보를 6월 11일까지 공모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모 홍보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27일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6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안전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등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우수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시상하는 제도다.

공모 부문은 ▲수기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 건설) ▲공로상 3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 ▲콘텐츠 공모상 2개 분야(UCC영상, 웹툰)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관계인은 소방청이나 한국안전인증원, 소방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양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회(구조분야) 대비

구조분야(일반) 출전 위해 맹훈련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충남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일반) 출전을 위해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일반)은 재난현장에서 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경기로 방화문 개방, 유리파괴 및 협소 공간구조, 장애물 통과, 맨홀 통과 등 재난현장과 밀접한 4단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도내 1위를 한 소방서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의 구조전술 분야 충남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소방위 이정행, 이희태, 소방장 정동현, 홍상수, 소방사 김영혁은 청양소방서 대표로 출전을 하며 지난달부터 체계적으로 체력 및 기술을 집중 훈련하고 있다.

공항경찰 공조로 마약판매 피의자 극적 검거

홍성경찰서, 외국인 피의자 특정 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직전 체포

충남 홍성경찰서 형사팀이 인천공항경찰대와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판매 피의자를 출국 1시간 전 극적으로 검거했다.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저녁 9시 16분께 충남 홍성군 홍방북로 325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버린 승용차를 수색해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12.36g과 대마 22.77g, 합성대마 26.73g을 압수했다.

버려진 차량에 대해 수사를 펼쳤고, 추적·확인 끝에 10일 만인 3월 27일 마약류 소지 혐의자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A 씨(20대, 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열리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에 A 씨의 출국 여부 확인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지진 신고 후 자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같은 날 저녁 6시 5분 동남아행 비행기 표를 발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즉각 피의자 체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면서 동시에 인천공항경찰대에 공조 요청했고, 오후 5시에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지나 제1 여객터미널 내에 서 출국 대기 중이던 피의자 A 씨를 발견해 극적으로 체포하고, 3월 29일 구속했다.

피의자 A 씨는 "2018년경 단기 비자로 입국해 충남 천안지역에서 노동에 종사하다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 판매를 했으며, 원거리 이동을 위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타고 홍성지역에 내려왔으나, 경찰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쫓는 것 같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며 마약판매 혐의 시인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인천공항경찰대의 신속한 공조 수사외국인 피의자를 검거·구속했으며, 마약판매를 지시한 상선과 피의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자들에 대해 추적 수사 중이다"며 "마약류 판매·소지·투약사범에 대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정부, 비상진료대책 4월 연장 시행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도 가능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38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과 진료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

병원의 간호인력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호출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토록 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 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신고자 정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도 제공하고 필요시 타 수권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협박과 같은 위법사태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평택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평택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4일간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저해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지자체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낚시어선 주 조업지인 국화도, 입파도, 대난지도 등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파출소와 관할 지자체가 낚시어선의 안전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음주 운항 및 항내 과속운항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저해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함으로써 낚시어선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도를 높이고 단속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파도, 대난지도 등 인근 해상에 당진=최근수기자

건설현장에 퍼진 외국인 범죄...경찰 3개월간 집중단속

마약 유통이나 도박사이트 운영 등 초국경범죄 대응 위해

경찰청은 마약 유통이나 도박사이트 운영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요 외국인 범죄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하던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외국인 피의자 수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도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외국인 도박 및 풍속 사범이 2022년 383명에서 2023년 625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거점 투자사기·리딩방이나 도박사이트 등 사기 도박 범죄도 적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 현장의 인건비 부담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집단폭력 등) 및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조직재편으로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 작전·추적 사무를 병행하게 됨에 따라 인터폴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범죄조직 실체 확인까지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정 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살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

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나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불법무기류 제 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

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청명·한식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경계근무

논산소방서, 유사시 신속대응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다가오는 청명·한식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청명·한식 기간인 3-6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 9-10일 실시된다. 해당 기간은 식목 활동 등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화재 등 위험요

인이 증가하고, 선거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선거 관련 시설에 몰리면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소방서는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계 운영으로 화재 등에 의한 재난 발생 위험을 낮추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현장안전 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 ▲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등이다.

김경철 서장은 "청명·한식과 선거 기간에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만큼 각종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며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해 화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논산=김성구기자

60년을 이어 온 매일 체크 내일 행복

내일의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60년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한을 걸어왔습니다.

메디체크 통해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www.afsp.go.kr

MECA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원주 송광사 금강문 등 보물 지정

조선 후기 건축양식을 간직한 전국 사찰의 산문(山門) 및 불전

문화재청은 '원주 송광사 금강문(完州 松廣寺 金剛門)' 등 전국 사찰의 금강문(金剛門)과 천왕문(天王門) 8건과 불전인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瑞山 文殊寺 極樂寶殿)'까지 총 9건을 국가 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한 금강문과 천왕문은 17~18세기에 걸쳐 건립(建立) 및 중창(重創)된 것으로 특히, '완주 송광사 금강문(完州 松廣寺 金剛門)', '보은 법주사 천왕문(報恩 法住寺 天王門)',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順天 松廣寺 四天王門)', '구례 화엄사 천왕문(求禮 華嚴寺 天王門)'은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

亂)을 거치면서 폐허(廢墟)가 된 사찰문 하유산을 벽암각성(碧巖覺性)과 그 문과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건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조선 후기 사찰 기암배치(伽藍配置)와 건축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양산 통도사 천왕문(梁山 通度寺 天王門)', '영광 불갑사 천왕문(靈光 佛甲寺 天王門)', '포항 보경사 천왕문(浦項 寶鏡寺 天王門)', '김천 직지사 천왕문(金泉 直指寺 天王門)'은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와 함께 지역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사문(寺門)으로 역사적, 예술적인 가치가 크다.

이번에 함께 보물로 지정된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瑞山 文殊寺 極樂寶殿)'은 정면 3칸, 측면 3칸, 다포식 공포, 맞배 지붕 형식의 불전으로 중건 시기에 대한 고증 자료는 없으나, 주요 구조부의 목재에 대한 연륜연대 조사와 방사성탄소연대 분석을 통해 1630년대에 중건(重建)된 것으로 파악된다.

내부 중앙에 불상을 모시는 불단인 수미단을 두고 뒤쪽에 후불벽을 조성한 조선 중기 이전의 구성 양식을 갖는 등 17세기 중건 당시의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

또한, 17세기에 나타나는 단청의 문양

과 채색이 주요 부재에 남아 있고, 대들보와 공포부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 이후의 단청 변화가 나타나는 등 17세기 이후 단청의 문양과 채색의 시기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예술적·학술적 가치도 높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한 사찰의 산문(山門)·원주 송광사 금강문 등 8건과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인 협조와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대전교육청, 직업계고 30명 학생 대상 글로벌 현장학습 실시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인턴십 사업설명회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1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2024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인턴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2024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인턴십 운영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호주 및 브리즈번시 현지 상황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인턴십에 관심을 갖고 있는 200여 명의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지도교사, 대전시청 및 교육청, 호주 현지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인턴십은 4월부터 3차에 걸친 학생 선발 절차를 거쳐, 직무 및 영어교육 등 국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 10주간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조리, 건축(타일), 뷰티(헤어), 미디어콘텐츠, 전공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30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대전시와 연계하여 호주 브리즈번시에서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인턴십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42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김정환기자



백제중, 학생회 리더십캠프 운영 백제중(교장 이준석)은 3월 30일 학생 자치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리더십캠프를 운영하였다. 학급 리더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키우기 위해 진행한 이 행사는 학급 운영 방안을 나누고 봉사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국제고,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 확산 위한 공동 목표

사할린 한국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세종국제고등학교교장 박희동, 이하 세종국제고는 2일 사할린 한국교육원(원장 정승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교류, 포럼 개최, 프로젝트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 전파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자체 한국어문화 강좌 및 특강을 운영하고 현지 한국어 채택학교를 지원하며, 한국어 경시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하고 있다.

세종국제고 역시 미국,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 공동수업 및 방문 교류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 및 교류 국가와의 문화상자 교환 등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

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사할린은 한인 비율이 높고, 최근 한류 확산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종국제고와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국제고 박희동교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한국문화에 대한 애정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고, 사할린에서 한국어를 익히고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 분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할린 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환영하며, 양 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양질의 교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충남교육청, 보령·서천·공주 응모하여 모두 선정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3개 지역 선정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부가 시행한 2024년 학교복합시설 상반기(1차) 공모사업에 보령, 서천, 공주 3개 지역이 응모하여 모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보령(사업비 462억 원), 서천(사업비 157억 원), 공주(사업비 114억 원) 3개 지역은 교육부로부터 총사업비 733억 원 중 36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령은 보령교육지원청 유흥부지에 공인3급50m 8레인, 수심 2m, 관람석 232석) 수영장,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133대)을 갖춘 (가칭)보령학생수영장을 건립한다.

서천은 서천도서관 부지에 1층은 청소년 꿈제작소, 생태스마트팜키트 등 상상이터와 2층에 어린이자료실 등 신기술 융합 체재형 도서관을 운영하는 (가칭)서천도서관 상상이터를 개축한다.

공주는 유구중학교 부지에 1층에 개방형 어린이자료실, 색동책정원과 2층에 청소년 너른퓨터 등 융합형 청소년종합자료실 3층에 미디어제작공방, 문화창작공방 등 공감형 평생학습실을 갖춘 (가칭)유구도서관 세대어울림터를 이전 신축한다.

공모 선정 이후에도 도교육청은 지속적인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학생과 주민이 상시 이용 가능한 우수하고 특화된 학교복합시설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주차장을 포함한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시정보센터 등을 학교부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로, 충남교육청은 2027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돌봄, 문화, 체육,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과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직원들

2024년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은 지난 4월 1일, 태안교육지원청과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직원들이 태안교육지원청 어울림홀에 한데 모여 '2024년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반복되는 폭력예방 통합교육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태안교육지원청 윤여준 교육장과 태안해양경찰서 임재수 서장의 협의로 두 기관이 함께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예방교육의 강사로 초빙된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고명진 강사는 성인지 감수성,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대처 방안도 세심하게 제시해 교육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태안=김정환기자

당진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육현장의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 충청남

도교육청 감사관 재직시절 청렴윤리 업무를 담당했던 손우성 교장(태안백화초등학교)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제도,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손우성 교장은 수강하는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주요 법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반 실제 사례,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청정 당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교육뿐 아니라 청렴 동아리 활동, 청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개소

청남초, 제3회 청년면 토마토·벚꽃 문화축제 참여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배방읍 모산리에 위치한 배방 복합 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운영을 이날 1일부터 개시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자체가 설립하고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돌봄 시설이다.

이번에 개소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배방)'은 센터장을 비롯한 돌봄 인력 2명이 상주해 이용 아동들에게 기본 돌봄부터 특자치도와 축제기도, 놀이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초·중학생(6~12세)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며, 운영 시간은 학

기 중에는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특히 이번 돌봄센터 5호점은 배방 복합 커뮤니티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시설과 연계 이용이 편리해 인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 041-534-7706으로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경귀 시장은 "양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라며 "지역 돌봄 시설 구축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제79회 식목일' 기념 식목 행사 진행

청양교육지원청, 진기성 교육장 비롯한 청양교육지원청 직원 참여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은 지난 1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식목 행사에는 진기성 교육장과

비롯한 청양교육지원청 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청양교육지원청 청사 내 부지에 무궁화와 철쭉, 꽃잔디를 식재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교육지원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진기성 교육장은 "이번 식목 행사는 환경과 교육의 시너지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청양교육을 넘어 충남교육 9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생태시민교육과도 부합하는 행사"라며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작은 실천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예산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청렴교육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중하)은 지난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 확산과 정착을 통한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 되었으며, 충남도교육청 이영택 감사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충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렴 정책과

청탁금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 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기성 세대와 MZ세대의 문화·특징을 알아보고 세대 간 상호 존중·배려를 통한 갈등 예방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리더십·소통 교육 등을 실시했다.

예산=박재화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개강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석) 영재교육원은 지난 3월 30일 논산시미래배움터(구 논비종합체험지원센터)에서 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개강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부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수학·과학 통합 및 AI-SW 교육과정으로 102시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지

난 1년간 논비종합체험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축하여 논산시미래배움터로 발돋움했으며 인공지능, 상상이력, 메타버스, 3D 프린팅, 드론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게다가 영재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뿐만 아니라 교통의 불편함으로 영재교육원을 다닐 수 없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논산=김성구기자



금산고, 2024학년도 앎과 삶에 있는 교육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함께, 봄' 출범

금산고등학교(교장 권재문)는 2024학년도 앎과 삶에 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함께, 봄'을 출범했다.

'함께, 봄'은 보건·상담·영양·사서·특수·진로 교사로 구성되어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지속 발전 가능한 삶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한다.

'봄'에는 '생명 존중'을 주제로 동·불교 및 동물 복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고, 학교 폭력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진 공모

전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은 "이 기회를 통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확대하여 동물에 대한 존중을 익히고 표현할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동물 복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전문적 학습공동체 '함께, 봄'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역량 향상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산=이정복기자

'힘센충남' 1조 투입해 일자리 9만개 창출

道, 15-64세 고용률 70% 달성 등 '2024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수립

충남도가 올해 1조 755억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9만개를 창출, 힘센충남 경제 실현을 위한 발판을 놓는다.

도는 1일 '미래로 성장하는 힘센충남 일자리!'를 비전으로, 지역일자리를 9만개 신규 창출과 15~64세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민선 8기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의 2번째 실천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기반시설 구축과 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 기반 확보이며, 143개 사업에 전년보다 1272억원 증가한 1조 755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투입 예산은 ▲직접일자리사업 4030억원 ▲일자리 기반시설 구축 4685억원 ▲고용서비스 661억원 ▲고용장려금 634억원 ▲기업지원사업 등 745억원이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대응하고, 주력산업의 다변화를 통한 미래형 일자리를 중점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점 추진하고 있는 베이비리 메가시티 경제 실현,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경제 발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고양이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질의 기업 발굴·연계를 통한 고용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도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전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동안 지역일자리를 목표와 대책

을 공표하고 있으며, '2024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은 도 누리집과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호 경제기획관은 "올해는 외국인 유학생 입학승인제 시범사업과 지역특화·비자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실행계획 공시

청양군, 전국 최초 농촌형 일자리 플랫폼 본격 가동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연차별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매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공시한 후 추진 성과를 확인 평가하는 고용 활성화 정책이다.

군은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2023~2026년)을 마련했으며,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추진 2년 차인 올해 경제활동인구(15~64세) 고용률 80%, 취업자 수 2만 1,000명, 신규일자리를 4,500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군의 일자리 대책 6대 핵심 전략은 ▲지역경제 성장동력 기반 조성 ▲농업인이 행복한 일자리 환경 조성 ▲행복 100세 건강복지 도시 조성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을 연계한 일자리 다양화 ▲주민 주도적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맞춤형 일자리 통합서비스 제공이다.

군은 핵심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5대 중점과제와 32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도 단위 기관 유치와 국제 최대

파크골프장 조성 등 민선 7~8기 성과를 기반으로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에 집중한다.

군은 특히 지난 1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으로 대변되는 '행복 100세 청양 만들기'와 일자리를 연계,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비롯해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가족문화센터·평생학습관 조성 등 건강과 복지 기반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또 군내 모든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구축한 '청양군 일자리 정보망' 활성화를 통해 청양만의 특화된 일자리 환경을 제공하면서 구인 구직의 어긋남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농업, 문화, 관광, 복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용 안전망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서산새일센터 여성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 7연속 '최우수'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 워크 페스티벌에서 충남도지사 기관 표창



충남 서산시는 4월 2일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서산새일센터)가 3월 29일 열린 '2024년 충남 워크 페스티벌'에서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 워크 페스티벌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서산새일센터는 충남 여성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성과를 달성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페

스티벌 개막식에서 충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시상했으며, 서산에서는 여성가족과 이경애 주무관이 상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새일센터가 여성 취업지원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경력단절 여성의 용기있는 도전이 이번 결과를 만들어 낸 주역이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역량이 단절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지속 참여할 수 있는 행복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새일센터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구인처 연계, 직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여성을 위한 상호발전과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구분	지역	사업명	예산액	창출 일자리
농업	대전	농산물 직거래	100억	500명
	충남	농산물 직거래	150억	750명
	충북	농산물 직거래	120억	600명
	충청	농산물 직거래	180억	900명
제조업	대전	제조업 지원	200억	1000명
	충남	제조업 지원	250억	1250명
	충북	제조업 지원	220억	1100명
	충청	제조업 지원	280억	1400명
서비스업	대전	서비스업 지원	180억	900명
	충남	서비스업 지원	220억	1100명
	충북	서비스업 지원	200억	1000명
	충청	서비스업 지원	250억	1250명

aT 대전세종충남본부

'이번 주는 얼마유?' (4월 첫째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aT, 본부장 안병희)는 대전지역 농수산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하고 전통적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 장바구니 물가정보 '이번 주는 얼마유?' (4월 첫째 주)를 발표했다.

aT 관계자에 따르면 "청양고추는 산지 생육 호전으로 출하량이 증가해 상품 100g 기준 지난주 대비 38% 내린 1500원에 거래됐으며, 향후,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고 일조 시간이 증가하면서 고추류 생육이 원활하고 산지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이 약보합세"라 전망했다.

반면, "배는 2023년산 저장량 부족으로 시장 내 반입 물량이 감소해 상품 10개 기준 지난주 대비 50% 오른 6만원에 거래됐으며, 향후, 장기 저장으로 인한 저장성 저하로 잔여 물량이 더욱 감소하고 산지 출하 조점이 이루어지면서 공급 부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의 강보합세가 전망된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조폐공사 '온기나눔 한마당 음악회' 열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 통해 함께한 축제 공간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는 지난 1일 오후 화폐 박물관 광장에서 대전장애인복지시설협회(협회장 이상섭)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온기나눔 한마당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재능기부로 함께한 박종훈 MC 사회로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SUN2014 밴드 공연, 팬플루티스트 최기호의 팬플루트 연주, 전자바이올리니스트 헤영, 마오 밴드의 공연과 서커스 발레쇼 등이 흥겹게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바자회와 우드버닝 체험도 진행됐고 팝콘, 가래떡 등 먹거리도 제공했다. 만개한 벚꽃 아래 임직원과 장애인이 함께 꽃길 걷기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성창훈 사장은 "이번 온기나눔 한마당 음악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폐공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폐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행복장터에서는 임직원들이 기증한 물품 판매 수익금과 참가자 기부금 전액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설공단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거리 홍보

아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이하 공단)은 3월 29일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아산 터미널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적힌 전단과 홍보 물품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공단 생활자원처리장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진정성을 더했다.

한편 공단은 'NO! 플라스틱 캠페인',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 등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여 폐기물 감량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이행과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힘쓰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깨끗한 혈관 만들기 교실 참여자 모집

당진시보건소 5월 1기, 6월 2기로 운영, 1기수당 15명씩 총 30명

당진시보건소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깨끗한 혈관 만들기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깨끗한 혈관 교실은 5월 1기, 6월 2기로 운영되며, 1기수당 15명씩 30명을 모집하며, 모집 대상은 고혈압 당뇨 질환자로 전년도 프로그램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혈관 만들기 교실은 4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당진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며, 심뇌혈관 질환관리 이론·영양·운동 교육과 실습을 할 예정이며,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체지방을 측정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당진시보건소 건강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깨끗한 혈관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0000 깨끗한 혈관만들기 교실 상반기모집

모집기간: 5월 1일 ~ 5월 15일 (총 15명)

수강기간: 1기: 5월(7일, 14일, 21일, 28일) / 2기: 6월(4일, 11일, 18일, 25일) / 매주 화요일 14:00~16:00 / 1기수당 400원

수강대상: 당진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 4층 프로그램실

장차내용: 만성질환관리법 교육 및 실습 (이론·실기) / 영양·운동·심폐운동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신청 / 당진시보건소 건강관리팀 360-6060/5

▶ 당진시보건소

공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선제적 안전관리

다소비 농산물 부적합 발생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 검사 '적합'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판매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안전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 양파, 콩나물, 시금치, 파 등 시민 다소비 농산물과 들깨잎, 고춧잎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등 총 35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산물 직매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 모든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나타난 효과로 보인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농산물 직매장 대상으로 꾸준히 잔류농약 검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담당자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1:1 맞춤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공주=정성범기자



동정
협약식



오성환 당진시장 =3일 오전 9시, 대호지면 창의사 광장에서 '대호지·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 위패 봉안식'에 참석, 오후 5시, 7층 접견실에서 당진시민축구단 스폰서 협약식.

민관 전담팀 회의



이종필 청양부군수 =3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약취 개선 민관 전담팀 회의에 참석.



청양군 '산불 제로' 총력 긴급비상대책회의·예방활동전력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일, 산불 재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의한 산불방지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4월 한 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분청과 각 읍면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진화대원 45명과 유급 감시원 48명을 배치하는 등 방지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 산불취약지역 순찰 강화를 통한 중점 관리와 183개 마을에 대한 공무원 책임 분담제를 시행하는 등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종필 부군수가 매 주말 10개 읍면 산불 예방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불발 소각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산불 원인자 형사고발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김돈곤 군수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에 대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감시와 진화 시스템 연계에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벚꽃축제와

연계한 청렴 캠페인 진행

아산시 관광진흥과는 지난달 31일, 아산스파비스 입원에서 열린 '아트밸리아산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 현장에서 청렴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벚꽃의 꽃말인 '깨끗함, 청렴'에 착안해 벚꽃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계획했다. 관광진흥과 직원들은 청렴 구호를 외치며 청렴 의지를 다지고, 청렴 표어가 부착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전통 '5일장 부활' 본격 논의

지난 1일 '5일장 액션그룹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 갖고 추진 상황 점검 서부·동부시장 상인 중심 '액션그룹' 조직해 컨설팅·교육 진행

태안군이 전통시장 '5일장' 부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전통시장 관계자, 동문3리·남문3리 이장 및 지역 상인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장 액션그룹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5일장 운영조직을 중심으로 액션그룹(군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결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5일장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시장 상인회 회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액션그룹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일장은 5일마다 열리는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으로, 지역 상인들



이 직접 생산한 농작물과 수산물, 수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군은 지역사회의 문화를 보존하

고 생동감 넘치는 태안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동부·서부시장의 지리적 접점인 태안을 '걷고 싶은 거리'에서 전통시장 5일장을 부활 시키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5일장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

다.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총 세 번의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5일장 브랜딩 및 액션그룹 컨설팅'을 위한 용역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걷고 싶은 거리' 공간운영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플리마켓과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중고장터 개설과 시설 개선 등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태안 5일장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 문화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대외 홍보에 총력

한국여행업 협회연계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



당진시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중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당진항만관광공사와 한국여행

업 협회(KATA, 회장 오창희)가 2023년 체결한 당진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과 12월 팸투어와 우수상품개발설명회를 하며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대한 홍보를 이어간다.

11일에는 한국여행업 협회 회장단과 여행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팸투어로 삼포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장, 솔비성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12일에는 문화부와 한국여행업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장소:서울 롯데호텔)에 참여해 기지시줄다리기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지역관광 활성화,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이라는 주제로 ▲전국 여행사 ▲관광재단 ▲관광콘텐츠업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이 행사에서 기지시줄다리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줄다리기 관광자원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기지시줄다리기 민속 축제는 4월 11부터 14일까지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된 배트남강보디아벨리핀 및 주한대사, 주한미군 협프리스, 일본 다이센시 방문단 등을 초청해 다양한 국의 인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4월 직원 월례모임 열려

박시장,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 다해달라' 강조

지난 1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4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박 시장은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아직 130여 개의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자체가 유치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산은 삼성·현대 등 대기업 중심의 탄탄한 산업기반과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공공기관들이 눈여겨보는 곳인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특정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다. 부서별로 업무 관련 공공기관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을 찾아낸 부

서에는 특별 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그만큼 아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선거철이 되면서 정치권에서 일부 공공공직을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정당을 떠나, 아산 전체의 균형 발전 등 합리적인 시정계획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는 아산시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국비·도비를 반영했다고 해도, 결국 사업의 완결은 시장에서 이뤄진다.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77개의 기관



표창을 받았고, 올해는 기관 표창 100개를 받아 전국 1위의 지자체가 되자고 공표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표창 등 기관 표창에 대한 격려금을 확대하고, 지급 대상도 도지사 표창까지 확대하며, 특별휴가도 과장과 팀장, 담당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니,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3월 ▲온천 초 인근 포장마차 철거 합의 ▲아트밸리아산 명품브랜드 대상 선정 및 도시브랜드 평가 1~3월 연속 7위 달성 ▲아산온천 빛꽃축제 성료 등의 성과를 소개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월례모임은 시민 14명, 공무원 7명 등 21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이원간척지에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어려움 해소 기대·시범사업 성공시 면적 100ha까지 확대기로

태안군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나선다.

군은 원북면·이원면 소재 이원간척지(이곡리 1452-1번지 등 10필지) 내 '타작물 재배 의무 농지(200ha)' 중 일부인 10ha를 조사료 생산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조사료 생산기반 약화로 농가지출이 늘고 저품질 조사료가 급어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현재 관내 축산농가 중 사료작물 생산농가는 전체의 15%로 자급률이 40%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볏짚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이원간척지 내 휴경농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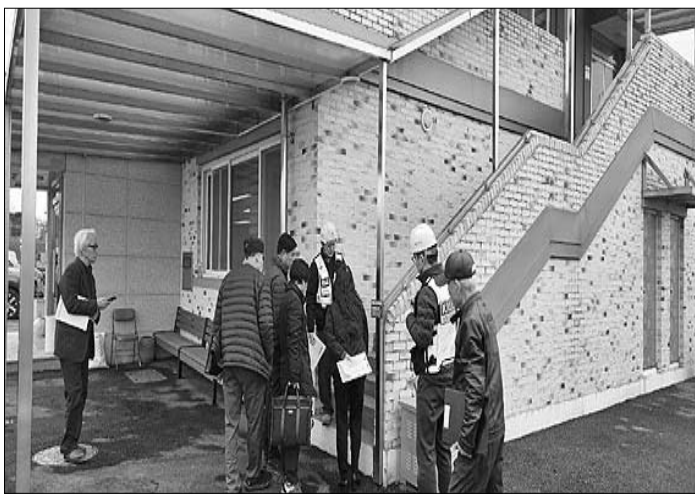
일부를 조사료 생산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2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참여 희망 농업인(법인)들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왔다.

또한, 새만금간척지 조사료 단지 조성 경험이 있는 국립식량과학원에 기술지도를 요청하고 생산필지 정비, 토양분석 및 염도 관리, 종자 확보에 나서는 등 군과 농업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철저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생산단지 조성에는 올

해 총 7000만 원(군비 5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이 소요되며 조사료에 적합한 종채비, 피사료용, 이탈리안그라스 등이 재배된다. 5월부터 재배작물의 파종과 비료살포 등 지속적 생육 관리에 나서 10월 수확을 마무리하고 시범사업 추진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이원간척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현재 10ha인 생산면적을 추후 100ha까지 확대기로 하는 등 대규모 집적화단지 조성예를 내는다는 복안이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사업' 추진

당진시, 국신규 노인일자리 공모 선정

당진시는 2024년 2월에 국토교통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신규 노인일자리 사업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취약 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2024~2027년까지 경로당 시설의 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적물적기술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점검에 필요한 시니어 채용 예산 50%를 국비 지원하고 시니어를 전문 점검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와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사업 추진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에서는 올해 3월부터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에 10명의 시니어를 고용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소규모 취약 시설로 분류된 경로당 안전 점검 활동을 하고 향후 소규모 취약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진시는 경로당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을 통해 관내 경로당 중 가스 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 올해 135개소에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해 심사 중이며 선정 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재난 안전 신고제도 가동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www.safereport.go.kr)를 통해 재난 안전 위험요인 신고 제도를 계속 가동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집중 신고 대상은 산불이나 화재, 축제 행사 위험,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 위험 요인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불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꽂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

치 또는 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이나 고장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축제나 행사는 인파 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 등 위험물 방치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해빙기 위험은 균열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축대, 교량 등 낡은 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파손 등을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 보도블록이나 방울호터미 파손, 불량식품이나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의 유해환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는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안전 신고 마일리지(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재난 예방과 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 신고를 선정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우수 안전 신고로 선정되면 안전 마일리지(당당 1,000점)를 제공하고 연간 누적 마일리지(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 쿠폰(3만 원 이하)을 제공할 계획으로 올해 신고 건은 7월경 선정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해빙기와 개학기, 행락철이 겹치는 봄은 재난 안전 위험이 큰 때"라며 "주변의 재난 안전 위험 요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5천 5백억 투자유치 성공”

논산시, 기업폴 확보위해 수도권 과밀지역 중 타겟 지역 집중관리 기업확보타겟 지역 선정하고 시장 명의 서한문 발송과 기업방문 추진



청동기의 중심 풀마을 넘어 세상으로

부여 송국리 유적 ‘제6회 부여 송국리 청동기축제 열려’

제6회 부여 송국리 청동기축제가 오는 4.19.(금)부터 20.(토)까지 이틀간 부여 송국리유적 일원에서 ‘청동기의 중심! 풀마을 넘어 세상으로’라는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로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쁨지게 한다는 뜻인 곡우穀雨, 4월 19일에 맞춰 축제가 개최된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우리나라 벼농사의 기원과 전과경로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기시대 농경문화유적을 이룩한 곳에서 한해의 풍년 농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를 통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더 깊다.

부여 송국리유적정비지원추진위원회(위원장 이창노)에서는 이번 축제를 주민주도의 자립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축제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년기원제, 청동기 축제 개막식(청동기 퍼포먼스, 축하공연, 생생프로그램을 연계한 고사리 꺾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선사시대를 재현한 물동이 나르기 및 장 던지기 대회, 짚풀공예 체험, 새끼꼬기 게임, 송국리 토기와 토종 쌀 체험, 선사 유물 뽑기, 유적발굴 체험 등으로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창노 위원장은 “삼천 년 전, 청동기 농업 유산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고 평화를 주었다. 송국리 석관묘 수습 조사결과 곡우를 맞이하여 청동기축제, 풍년기원제를 함께 추진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 벼농사의 발상지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 송국리 유적은 기원전 7~6세기 전 농경과 수렵을 하며 살았던 고대 인류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한반도 중남부 최대 규모의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다.

다수 발견된 집 자리, 수혈, 분토, 건물지 등은 청동기시대 중기 대규모 마을의 주거생활, 장례문화, 생산 및 저장, 의례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이 지역의 석관묘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 등은 당시의 사회가 분화된 계급으로 이루어진 복합사회였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송국리 유적은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취업적응기 장려금 신청하세요

서천군, 직장동료와 친목도모 위한 소통 교류비 지원

서천군이 ‘취업 적응기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에게 직장동료와 교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

취업 적응기 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직장에 취업한 지 2년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동료들과의 교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화관람, 등산 등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에 국한해 지원된다.

미달 11일부터 20일까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 후 개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 후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노후 상수관로 세척으로 맑은 물 공급

계룡시, 전지역 대상 2단계로 나눠 상수관로 세척 진행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북부배수지 급수구역인 염사▲신도안 지역 상수관로 63km 구간에 대해 1단계 세척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안산배수지 급수구역인 두마▲금암 지역 28km 구간에 대해 2단계 관로 세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노후 상수관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로 교체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노후 상수관로 세척사업을 선행하고, 향후 국비 지원을 받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관로 교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번 세척사업은 상수관 내부에 고압의 공기과 함께 강력한 수압의 물을 동시에 공급해 관로 벽면에 부착된 이물질 및 물때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관로 세척 시 내부 CCTV 촬영으로 관로 상태를 점검하고 수압 테스트도 실시해 관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복구공사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우선 추진하는 1단계 공사 기간 중 단수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63km 구간 세척공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염사 시기까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노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56억원의 특별회계 사업비를 투입하여 송·배수관로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민선 8기에 들어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이 5천 5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성현 시장은 관계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산시의 장점인 넓은 부지를 통한 사업 확장 용이성과 대진, 세종, 충청, 가파워 물류 여건이 좋고 인제 수급이 원활하다는 점을 기업에 강조해 왔다.

논산시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 시 높은 토지 가격과 낮은 인제 수급이 어려운 점 때문에 지방 이전을 꺼린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민선 8기 들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논산시에 기업투자가 쏟아지는 성과를 얻었다.

시는 이런 투자유치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타겟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

졌는데 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지역과 인근 대도시이다.

A市的 경우 수도권 지역 중 현재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전 필요성이 생긴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논산시는 개발사업 지구들을 직접 방문해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B市, C市, D市의 경우 노후 산단으로 기업 이전 수요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B市와 C市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지방 이전 시 국비 지원 등의 메리트가 있고, D市의 경우 논산시와 거리가 가까운 것이 이전의 유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곳 산단에 소재한 761개 기업에 시는 지난 3월 논산시장 명의의 기업 유치 서한문을 발송했

서천군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돕는다

외상판대 대금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최대 80%까지 보상

서천군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안전한 경영활동 지원에 나선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

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하는 공적보험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분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천군에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제조업 중 보험 운용 필요성이 낮은 식료품 제조(C10, 음료 제조(C11), 담배 제조(C12)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기업당 3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고 2개 기관에서는 추가로 70%의 보험료를 지원해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계룡시 평생학습 공모사업 3건 선정

정부예산 6500여만원 확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기대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중앙부처와 충남도에서 주최한 평생학습 공모사업 3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성인 디지털 문해교실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각각 국비 2536만원과 3450만원, 도비 500만원 등 총 66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지난 해에 이어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계룡도서관이 선정됐으며,



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문화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은 계룡시와,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계룡시노인복지관이 협력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 사용 및 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며 관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부재

부여군 장애 인식개선·낙상 예방 교육 추진



부여군은 오는 4월 26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8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및 낙상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충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하여 운동처방사와 담당자가 각 마을 회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시선과 편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장애 인식개선

등정

식목일 기념행사



김기웅 서천군수= 3일 오전 10시 30분 비인면 성내리 산 3-1 일원에서 열리는 제79회 식목일 기념 행사에 참석



계룡시 봄철 맞춤형 영농상담 교육 시작 맞춤형교육 실시 고품질농작물생산기여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12일까지 ‘봄철 맞춤형 영농상담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영농교육은 관내 12개 마을에 전문지도사가 찾아가 농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소, 최근 농업기술 보급 및 농작업 안전사고 관리요령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고품질쌀 재배기술 ▲밭작물 재배기술 ▲주요 병해충관리 ▲유용미생물 활용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안내 ▲공익직불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홍보)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철 맞춤형 영농상담 교육을 통해 농업인 편의 증진 및 영농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교육을 지속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업무협약체결

부여군은 지난 1일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하여 백강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옥수), 규암농업협동조합(조합장 정동환)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0년 처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한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는 부모들이 함께 자녀를 돌보며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품앗이 활동, 부모교육 및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을 제공한다.

현재 부여군에는 기존 수관사 자리에 부여점과 옛 규암보건지소 자리에 규암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여점은 백강문화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규암점은 규암농업협동조합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규암농업협동조합은 아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농협으로 귀감이 되며, 백강문화사회적협동조합은 민간 순수 조합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큰 기대를 갖게 된다는 민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평이 있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양육 품앗이 활동과 이웃 간 정보교류를 통해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열린 공동체 공간”이라며 “향상된 공동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여군에서는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해 주고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논산=김태성기자

서천=김태성기자

계룡=김성구기자

부여=김성구기자

통정

물품 전달식



최원철 공주시장은 3일 오전 11시 이인면 북룡리 경로당에서 열리는 이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물품 전달식 참석.

간부회의



이완섭 서산시장은 3일 오전 8시 40분 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 참석, 오전 10시 대산노인대학에서 열리는 대산노인대학 특강 참석, 오후 4시 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식 참석.

제4기 금산여성대학 개강식



박범인 금산군수는 3일 오전 10시 금산을 여성청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제4기 금산여성대학 개강식 참석.

봄내음 가득한 보령무궁화수목원 힐링·휴양의 공간으로 각광



봄내음 가득한 보령무궁화수목원이 힐링과 휴양의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무궁화수목원은 입구부터 노란 개나리로 시선을 끌며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전시관까지 조성된 부장에 나뭇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거닐 수 있는 산책길로 4~5월 개화하는 배꽃과 조팝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170m 길이의 꽃터널은 수목원 내 봄철 최고의 포토존으로 '나만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또한 편백나무숲, 생태습지 등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유지한 유아숲체험원이 올해 상반기 조성될 예정이다.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숲 하늘길에서는 평균 10m 높이에서 무궁화수목원의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다육 및 사계절 온실, 전시관, 편백나무숲(피크닉장) 등 다양한 산림 체험 시설을 통해 녹색테라피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수목원 내에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문패, 동물인형, 독서대, 정리함, 원목 트레이 등을 만드는 목공예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지난달 30일부터는 은가비울쫄미술의 이혜진 강사를 초청해 울쫄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무궁화수목원은 총면적 24ha에 교목류, 관목류, 초본류 등 100여 종의 식물자원으로 조성돼 있으며, 삼천리·광명·한마음·선덕 등 150여 종 6000그루의 다양한 무궁화가 식재됐다.

하절기(3월~10월) 수목원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이며, 휴일일은 매주 월요일과 지정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이다.

무궁화수목원 주변에는 성주산자연휴양림, 성주사지 천년역사관,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등 가볍게 둘러볼 만한 관광지가 많이 있다.

김태선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투데이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24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 5월 4~6일 개최

"생활밀착형 그린 라이딩 관광도시로 브랜딩"



백제의 왕도 충남 공주시에서 오는 5월 4일부터 3일간 '2024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아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공주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한다. 공주 금강산관광공원에서 펼

서산시 신청사 건립에 '총력'

시민과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청사건립

...아트홀·다목적홀 등 활용 공간 조성

충남 서산시는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의 토대가 될 신청사의 모습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청사는 1청사와 2청사, 임대청사 등 4개 행정동에 6개소로 분산 배치돼 시민이 여러 부서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노후되고 사무공간도 협소해 시민을 맞이하는 시청 직원들도 편의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2010년부터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산시는 연면적 40,900㎡, 지상 10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지상 313대, 지하 300대 총 613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고 본 청사, 민원동, 의회 청사 등 3개 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본 청사에는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업무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총 32개의 부서를 통합 배치해 업무 처리 효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아트홀, 다목적홀, 스포츠센터 등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북카페, 문화강좌실, 작은 도서관, 로비와 연계한 전시장 등을 조성해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신청사 건립 후 현 청사는 일부를 부촌동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고 남은 부지는 시민이 도심 속에서도 청정한 공기와 녹색 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청사가 여섯 군데로 나뉘어 방문해 주시는 시민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시 청사의 배후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으며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저 업무 처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거듭나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1청사에 2개 부서, 2청사에 7개 부서, 개별청사 3개 부서, 임대청사에 1개 부서, 종합운동장에 1개 부서가 분산 배치돼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김기분 세무과장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의 혜택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1)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금강산관광공원을 출발해 석장리 박물관까지 약 5.5km 구간을 주행하는 것으로 금강과 아름다운 유채꽃 단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다. 5월 5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1천여명이 참여하는 '공주 백제 그라운드'가 진행된다.

금강산관광공원-대신리-동해리-유구-마곡사-신평면-대선리-금강산관광공원을 순회하는 총 96.91km 코스에서 사이클 4, MTB 3 등 7개 종목이 펼쳐진다. 금강과 석장리박물관, 정안천, 금강종주자전거길 등 공주의 주요 관광지 4곳을 내 마음대로 골라 달리는 두바퀴 '핫플 공주 라이딩 투어'도 3일간 진행된다.

또한, '자전거 in 공주 페스티벌'과 전국 스피닝 대회, 전국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공모전,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등 다양한 축제·경연 프로그램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점프를 비롯한 고난도 기술과 묘기를 선보이는 BMX 자전거 묘기 공연부터 5단 고층 자전거 공연 등과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색 자전거 체험과 가상현실 자전거 게임, 자가발전 흡사량 만들기 체험 등도 열린다.

이밖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발자전거 레이스, 거북이 자전거 경주대회 등 이벤트 경기 그리고 공주의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터와 먹거리 마당도 운영된다. 시는 2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주시, 관계기관, 자전거동호회, 추진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개최를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엇보다 자전거만의 특징을 살린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에서 자전거인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 대비 및 편의시설 제공에 각별히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의 역사와 관광자원이 자전거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 같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생활밀착형 그린 라이딩 관광도시로 브랜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자전거대축제 in 공주' 누리집(www.lkdfestiv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한편 서산시는 1청사에 2개 부서, 2청사에 7개 부서, 개별청사 3개 부서, 임대청사에 1개 부서, 종합운동장에 1개 부서가 분산 배치돼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한편 서산시는 1청사에 2개 부서, 2청사에 7개 부서, 개별청사 3개 부서, 임대청사에 1개 부서, 종합운동장에 1개 부서가 분산 배치돼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개월 이내에 법

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전자신고 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인분율에 따라 사업장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참여하고 커피도 받아 가세요"

금산군, 보곡산골 산벚꽃축제 홍보·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일조

금산군은 오는 21일까지 보곡산골 산벚꽃축제와 함께하는 금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보곡산골 산벚꽃축제를 알리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전 국민으로 금산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담배를 주문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커피교환권 1만 원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4월 24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금산군 공식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배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이 공제된다. 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 후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에서 대면으로 기부하면

된다. 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세계화담당관 ☎041-750-406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곡산골 산벚꽃축제를 알리며 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추진한다"며 "기부만 하면 이벤트에 신청되는 간편한 방식이니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우리/동네

축산악취 민원 해결 나선다

금산군, 악취저감 및 모니터링 등 시행



금산군은 올해 축산악취 민원 해결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군의 축산악취 민원은 총 67건으로 이 중 13건은 금성면 일원의 축산밀집지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또한 군민과의 만남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민원유발 축사에 대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악취저감기 보급 등을 통해 원인 해결에 집중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기준치 초과 시 악취저감명령 등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악취를 확인하기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축산악취감시반의 활동을 통해 축사 밀집지 감시원을 상주하고 악취 시에는 지도단속을 내실 계획이다.

또, 지도점검을 기존 연간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해 추진하며 매일 5개소를 선정해 현장지도 및 점검을 추진, 위반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금성면 하류리 축사밀집지역 인근에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개 시설을 추가해 악취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시설의 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저감계획 및 개선 방향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가족농노배출시설 440개소를 대상으로 매달 민원을 집계해 특장된 3곳의 악취를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조치도 시행한다.

행정조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이외에도 관련 부서의 연계를 강화해 악취 민원을 공유하는 등 강력한 협조체계를 이어나간다는 복안이다.

금산군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금산군 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가결돼 관내 가축사육제한거리가 350m→650m, 젖소 400m→1000m, 개폐지당 900m→1500m로 모두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악취 민원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강한 의지로 관련 대응을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친환경 수소전기 노면청소차 도입

서산시, 관내 도로 청소·비산먼지 저감



충남 서산시가 관내 도로 청소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수소전기 노면청소차' 한 대를 4월 초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소전기 노면청소차는 도로에 산재해 있는 흙, 모래, 분진물, 쓰레기 등을 진공 흡입해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된다.

시에 따르면 차량은 내부에 저장된 수소와 외부의 공기를 결합해, 최종 생산된 전기를 연료로 움직이며 매연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다. 또한 디젤 진공식 노면청소차량에 비해 소음도 적게 발생해 도심지를 순회할 경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공모 신청을 확보한 국비 7억 2천만 원을 포함한 9억 원을 들여 해당 차량을 마련했으며 올해 차량등록 등 절차를 마치고 4월 초 본격 운행할 방침이다.

서산시 이종민 도로과장은 "기존 운행 중인 디젤 진공식 노면청소차와 함께 이번에 도입, 운행하는 수소전기 노면청소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도로 쓰레기들을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목원대, 교원 특별연수 대표기관 자리매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지원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 산학협력단은 교원 특별연수(학습연구)를 지원하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원 특별연수(학습연구)는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원(유·초·중등 교사 42명 선발)에게 자기주도적 연구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자기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목원대는 2012년부터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원 특별연수(학습연구) 국내 위탁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목원대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대전지역 특별연수(학습연구) 위탁기관 중 최대 인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목원대 산학협력단은 “연수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수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연수 과정은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고 개인별 연구 계획에 따라 개인연구, 전공 및 교양강의, 세미나 등 목원대를 통한 위탁연수 27시간, 개인연구 및 정책연구 과제 수행 등 정책연구 워크숍 직무연수 30시간, 선진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체험연수 30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목원

대를 통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13개 학과에서 18명의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해 학습연구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도하고 있다. 목원대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기별 교원 맞춤형 특강, 국내 역사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 재충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철호 목원대 산학협력단장은 “앞으로도 학습연구년 교원의 능력개발 및 맞춤형 교원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향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연구년 위탁연수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청양의료원, 78면 규모 공영주차타워 준공 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김상경)이 지난 1일, 78면 규모의 공영주차타워 준공식을 열고 지역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돈국 청양군수,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과의원들,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대 산하, 대전시 아이 돌봄 지원사업 사업담당자 ‘실무자간담회’ 성료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산학협력단 산하 대전광역시가족센터(센터장 김혜영) 소속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2일 센터 강당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중시지를 대상으로 ‘실무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배재대 신기술혁신융합대학사업단, 3기 COSS 서포터즈 발대 배재대 신기술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이병연)은 1일 대학 내 X-Space에서 ‘2024학년도 제3기 COSS(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쌀과 간식 기부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임기호)는 지난달 29일, 공동생활 가정을 방문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하고자 사랑의 쌀 220kg(10kg, 22포)를 기부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침밥먹기 캠페인 (사)한국B.B.공주시지회(회장 박완순)에서 운영하는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성희)는 2일, 공주중학교에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종시 ‘마음안심버스’ 확대 운행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행한다. 세종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 지역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운행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넓히고 운행 횟수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순회’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심플(心+정류장) 등 2가지 형식으로 마음안심버스를 정기 운행한다.

세종=김태선기자

공연문화 활성화 ‘퍼포먼스 챌린지’ 최종 선정작 발표

KT&G 상상마당, 뮤지컬·연극 등 39개 지원 작품 최종 4개 작품 선정

KT&G 상상마당이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인 ‘제5회 퍼포먼스 챌린지’의 최종 선정작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번 ‘퍼포먼스 챌린지’ 공모에는 뮤지컬과 연극 등 총 39개의 창작극이 접수됐으며,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최종 4개 작품 ‘타임트래블 러브송’, ‘호모 세투스’, ‘휘미에르’, ‘21일’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은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공연장 대관 및 음향, 조명을 비롯한 보유 장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받아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퍼포먼스 챌린지’는 KT&G 상상마당이 국내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공연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들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퍼포먼스 챌린지’에 선정된 4개 작품은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성황리에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 중 ‘If I Were You’는 대학로 극장에 정규 편성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천범 KT&G 문화공헌부 공연담당 과



트장은 “KT&G 상상마당은 ‘퍼포먼스 챌린지’를 통해 특창적이고 창의적인 공연 작품들을 발굴 및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상상마당’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 제작자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돕고 국내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국립공주박물관 ‘교과서에 나온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찾아보세요”

국립공주박물관관장 이정근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남의 18개 지역 지자체 ‘공립박물관과 힘을 모아 지역 문화유산 찾기 ‘교과서에서 나온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교과서’를 기반으로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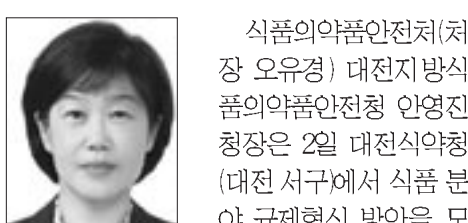
‘지역화교과서’에 수록된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활동지를 대전·세종·충남지역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39,000여 명에게 학교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활동지는 지역별 공립박물관과 협력해 각기 다른 18종으로 제작했으며, 어린이들은 활동지에서 소개하는 문화유산을 탐방하면서 문제풀이, 사진찍기,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활동지 수행이 완료되면 지정된 기관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지역 문화유산 찾기 ‘교과서에서 나온 문화유산’에 참여하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역 고유 매력 문화 발굴을 위해 국립박물관과 지역 공립박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공주=정삼범기자

안영진 대전시약청장, 관내 식품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안영진 청장은 2일 대전시약청(대전 서구에서 식품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전, 충청 지역 식품 HACCP인증업체 협의회 관계자 4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4 HACCP 등 식품 안전분야 정책 방향 소개’ ▲식품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성과 공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안영진 대전시약청장은 “철저한 HACCP 관리는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의 핵심”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배기자

대전하나시티즌, 프리미엄 스카이박스 신설

프라이빗 한 공간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프리미엄 라운지



대전하나시티즌이 세속 프리미엄 스카이박스를 신규 오픈했다. 스카이박스는 프라이빗 한 공간에서 경

기를 관람할 수 있는 프리미엄 라운지로 기존에는 대전월드컵경기장 E석에만 운영되었다. 2024시즌을 앞두고 W석에도 새로운 프리미엄 스카이박스를 신축하며 관람객들에게 경기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측 프리미엄 스카이박스는 각 방마다 특별한 테마와 스토리를 가진 6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HANA PLAY PUB ROOM(16인실)은 젊음의 에너지를 담은 스포츠 펍의 형태로 넓은 룸에서 친구,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고 편안하게 식음료를 즐기며 경기를 관람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HERITAGE ROOM(12인실)은 구단의 역사를 담은 공간으로 구단을 상징하는 브랜딩과 장식물을 통해 특별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VIP 고객 응대 및 직원들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스포츠 경기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SPONSOR ROOM(12인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을 담은 스포츠 라운지인 ▲HANA BAR LOUNGE ROOM(8인실), 모기업인 하나금융그룹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HANA FINANCIAL GROUP ROOM(12인실), 소규모 가족·친구·연인들을 위한 공간인 ▲STANDARD ROOM(4인실)도 마련되어 있다.

아산시,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관광객 유치 위한 ‘자연으로 힐링하는 아산 감성 투어 열차’



아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인 ‘자

연으로 힐링하는 아산 감성 투어 열차’를 운영한다.

이번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은 열차를 이용해 아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아산시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여행용 차량비용 지원, 아산페이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자연으로 힐링하는 아산 감성 투어 열차’ 상품은 ▲현충사 ▲그린타워 전망대 ▲신정호수변공원 ▲북한문화 공간 모나밸리 탐방 코스로 구

성돼 있으며, 지역화제를 이용해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자유 중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단체 여행객뿐만 아니라 내일로 개별 자유여행 철도패스상품을 이용하는 개인 여행지도 SNS에 여행 후기를 등록하면 내일 로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코레일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여행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 아산역 여행센터 (041-549-6988 또는 8788)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한국족보박물관 ‘우리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순회전시 추진

순회 전시 무상대여 15일까지 접수, 12월까지 운영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민)는 뿌리공원 내 한국족보박물관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순회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장수 독립운동가 25인 중 11인의 족보와

성씨를 소개하는 전시물로 대체화된 위인들이 역시 우리의 할아버지라는 친근한 인식의 전환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순회 전시자료 중 기미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인을 대표하는 손병희의 족보에는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이 사위로

기록되어 있으며, 백범 김구의 족보와 안중근 의사의 족보를 서로 대조해 보면 사돈지간임을 알 수 있는 등 독립운동가분의 혼백과 교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자료들은 이동이 가능한 경량 프레임과 패널 21매로 제작되어 학교, 도서관, 은행,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 평소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손쉽게 설치 가능하다.

송배기자



금산군, 기후변화 대응 작은실천결의 금산군은 지난 1일 군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박범인 금산군수 등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생활화 금산군 공무원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청양군백세공원, 봄꽃 1만2000본 개화 청양군(군수김돈곤)이 지난달 18일부터 6일간 백세공원에 심은 비올라와 팬지 8,000본, 데이지 4,000본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보는 이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CEO 특별안전점검인원실천서약식 개최 대전도시공사정국영 사장이 공사 건설현장, 수송중전 등 사업장을 방문하여 CEO 주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안전점검은 봄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업무가 재개되는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 CEO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충남교육청, 서울·전북·전남교육청과 학력향상 온(ON)시스템 활용 업무협약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서울·전북·전남교육청과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플로깅 캠페인 진행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미경)는 지난달 30일, 아산시1388청소년지원단 단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산공원에서 플로깅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 '청천저수지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지사장 박운근)는 4월 2일 보령시청리면에 위치한 청천저수지 주변 쓰레기 및 부유물, 침전물 제거를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초격차 기술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적기 투자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 출범

한국수자원공사가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을 새롭게 꾸리고 글로벌 물 시장 선전에 속도를 높인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4월 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경영현안 전략회의를 열고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대 사장과 임원진, 부서장들이 참여했으며 ▲글로벌 물산업의 전망과 기회 ▲추진단 운영계획 등을 공유했다.

영국 물산업 동향 및 시장분석 전문기관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와 캐나다 물산업 투자전문기업 XPV 워터파트너스(XPV Water Partners)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 '미래 물 공급 안정성 투자(Investing in a water-secure future)'에 따르면 미래 전 세계 물 재해 규모는 향후 10년간 2,400조 원의 손실이 추정되며 이에 따라 물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장이 가장 큰 투자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부문 인프라 투자는 2034년 9,150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기업 물 수요는 4,256조 원으로 올해 대비 6.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산업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하이테크 물산업은 2024년 386조 원에서 2034년 1,862조 원으로 4.8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을 단장으로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을 운영하여 미래 물산업 흐름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략방향을 일치시키고, 속도감 있게 전략을 실행하여 신성장 기회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은 ▲물관리 디지털 전환 ▲신규 물그릇 확보 및 활용 ▲물환경 관리 ▲재생에너지 개발 ▲글로벌 역량강화 5개 핵심 업무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전사적 소통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적합성과 재무적 영향, 투자계획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자원을 배치하는 등 선점과 집중으로 경영효율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하여 3대 운영 목표도 제시했다. 올해는 초격차 기술사업화와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

하고 2027년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으로 진입하여 2033년에는 물 안보 분야 경쟁우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선도하고 있는 초격차 기술은 디지털 물관리와 AI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등 3대 기술이다.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창립 60주년을 맞는 2027년에는 글로벌 물기업 Top 10에 진입하고, 매출규모 10조 원에 달하는 Global 2000리스트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구체화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안보가 글로벌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미래 유망분야를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끌고 나가야 할 때"라며 "추진단은 우리의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출발점으로,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적기 투자하여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덕구 세팍타크로팀, 창단 첫 입상... 전국 선수권 3위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 세팍타크로팀이 창단 이후 처음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기본 좋은 첫 출발을 알렸다.

대덕구에 따르면 대덕구 세팍타크로팀은 지난 3월 27~31일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전국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에서 쿼드(4인조), 레구(3인조) 경기에서 남자 일반부 각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덕구 세팍타크로팀은 대회 첫날 치러진 쿼드 경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2-1로 승리,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청주시청에 1-2로 아쉽게 패배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태성기자

충남 농산물 '30분 배달 시대' 본격 개막

충남도, 우아한형제들과 협약... 입점·판매 확대 노력



충남 농산물이 주문 후 30분이면 배달 받을 수 있는 '퀵커머스'를 통해 판매와 소비를 확대한다.

전형식 정부부지사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동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과 충남 농산물 유통 활

성화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충남산 농산물의 온라인커머스 입점, 판촉 등 판매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우아한형제들은 즉시 배달 장보기 서비스인 '배민B마트'와 식자재 플랫폼 '배민상회'는 물론, 대량 구매 전문 서비스인 '대용량 특가' 등을 통해 충남 농산물을 판매한다.

소비자들이 배민B마트 앱으로 충남 농산물을 주문하면, 리더가 지역 주요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30분에서 1시간 내에 배달까지 마치게 된다.

충남 농산물은 2022년 배민B마트에 입점, 지난해 30억 원 어치가 판매되며 이미 경쟁력을 확인한 바 있다.

판매된 품목은 수박, 배, 상추류, 토마토, 쪽파 등이다.

도는 배민B마트 농산물 매출액이 2022년 600억 원에서 지난해 1000억 원 이상으로 급성장한 만큼, 향후 더 많은 충남 농산물이 우아한형제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우아한형제들은 정기 판촉 행사와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월 평균 2000만 명이 이용하는 배달의민족 앱을 활용해 충남의 고품질 농산물을 알릴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공주대, 몽골국립대와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협의

양국 교육기관 간 교류 방안 등 협의

국립공주대학교 임경호 총장은 지난 1일, 몽골국립대학교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국 교육기관 간 교류 방안 등을 협의했다.

교류 방안 협의는 국립공주대학교 임경호 총장, 장학기 대외협력본부장, 이기선 대학원장, 김승자 연구처장, 사법대학 송홍규 교학부학장, 몽골국립대학교 비담빌지 바이토그로호 부총장, 다시빌지 사인빌

렉 세종학당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경호 총장과 비담빌지 바이토그로호 부총장은 이날 협의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 활동 ▲공동대학교원 프로그램 개발 ▲학생 및 교수 교환 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세종학당 간의 협회 등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도시공사, 대전대에 '천원의 아침밥' 후원금 500만원 쾌척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로부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천원의 아침밥' 후원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청양군청 작은 미술관, 특별기획전 전시 청양군 생활미술협회(대표 우재권)는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청양군청 지하1층에 있는 작은 미술관에서 '때: 갈납시'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때'는 시간, '갈'은 빛깔, '납시'는 납시였네를 뜻하며 조금씩 다가온 봄을 재치있게 담은 작품이 전시됐다.

순천향대 「동은학원 제50주년」 건학 46주년 기념식

故 항설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 건학정신 되새겨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2일, 교내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학교법인 동은학원 제50주년' 건학 4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 순천향대 김승우 총장, 김기덕 교학부총장, 김용하 연구산학부총장 등 법인과 대학의 주요 보직자와 교수협의회 의장, 직원노사협의회장,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설립자 추모 묵념 ▲동문 축하 영상 상영 ▲연혁 보고 ▲글로벌 산학연 공유 캠퍼스 영상 상영 ▲서교일 이사장 기념

사 ▲김승우 총장 축사 ▲장기근 속 교직원 표창 ▲김정옥·밀알·희망풍선 장학금 수여 ▲축하 공연 및 고가제창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바란다"라고 말했다.

근속자 표창은 김승우 총장을 비롯한 6명의 교수와 2명의 직원에게 30년 근속 표창을, 조호대 학생처장(영광행정학과)을 비롯한 5명의 교수와 1명의 직원에게 20년 근속 표창을, 류성호 병리학교실 교수를 비롯한 2명의 교수와 16명의 직원에게 10년 근속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대학과 부속병원 교직원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매일 1만 원의 밀알로 기부해 조성한 '밀알장학금' 5천만 원과 졸업 동문이 중심이 되어 후배를 위한 작은 사랑의 실천 '희망풍선 장학금' 5천만 원을 장학생을 대표한 총학생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대학 혁신을 바탕으로 위대한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산학연 공유 캠퍼스 공사진행 영상이 상영됐다. 대학은 부지면적 111,169㎡(약 33,669평)의 글로벌 산학연 공유캠퍼스 확장 공사를 통해 충남과 글로벌 첨단혁신도시들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비전의 반세기기를 준비할 방침이다.

이선-리량주기자

기고



양해웅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정책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7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

하였다.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및 적극 행정 추진, '청렴하게 살라' 10가지 약속' 임직원 행동지침, 모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및 부패 방지(청렴) 교육 의무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렴(통합) 실천반' 운영, 청탁금지법 관련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이해 충돌자가 점검, 국민연금 헬프라인) 등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 실천 노력의 결과로 공공기관의 청렴 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민연금 시행 36년째다.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51만 명으로 해마다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역대 최고 기

청렴

금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민의 신뢰를 쌓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임직원의 노고가 밑바탕이 된 결과이다.

과거에는 청렴의 의미는 부패하지 않음을 뜻하는 소극적 의미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다거나 소홀하게 처리하는 것도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포함된다.

이에 공단은 부패하지 않음에서 더 큰 범위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보공개,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를 한눈에 알기 쉽도록 구상한 업무 효율도를 민원실에 비치, 대면은 물론 비대면 연금 청구까지

접수증 및 가이드북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청렴 내부 강사를 추가 양성하고, NPS 청렴실천 가이드를 마련하여 직원 참여형 청렴 활동 확대 등 임직원 모두 청렴 인식 내재화로 신뢰가 넘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 직원 모두는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사를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공정한 업무처리, 관행화된 불합리한 부분 개선, 직원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고객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개선, 실천 행정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설

선거, 진영논리에 휘둘러서는 안돼

제22대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여당은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야당은 정권 교체에 대비한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서로 많은 의원이 당선돼야 한다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는다. 이번 총선은 현 정부에 정말 중요한 선거다.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국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이다. 선거를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확인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집권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면 여당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고, 반대로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면 현 정부는 야당과 어떤 형태로든 타협책을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 총선 후 다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매몰된 채 자신과 자기 진영의 승리에 급급해 최소한의 윤리마저 무너뜨렸다. 이들에게 국가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과거와 달리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정치인,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이 다수 출마했다. 이에 더해 출마자 가운데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35%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선택 역시 국민의 몫이다.

물론 국회의원 새로 뽑는다고 온전히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권교체로 거듭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 선택해 놓은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보다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퇴보의 길을 걷는다. 이 또한 국민이 진영논리에 휘둘러져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진영을 떠나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할 선량을 선출해야 한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기대한다.

선택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언제부터인가 정·관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보와 보수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들은 자기 진영은 무조건 옳고 상대 진영은 그러다는 진영논리에

플라스틱 규제는 선택 아닌 당위다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이 적을수록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덜 쓰기 위한 생활 속 실천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게다가 각종 제품 속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곳곳에 파괴되어 인간을 비롯, 동·식물, 바다생물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고 심지어 플라스틱에 세금을 물리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의 실천하지 않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환경 선진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일회용 수저, 접시, 빨대, 컵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2019년부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금지했고 내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상향별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어렵다. 기업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이 재활용하기 쉽도록 포장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그러한 인식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 소재나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을 쓰고, 재활용하기 쉬운 제품들을 생산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규제하고 플라스틱을 덜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정책을 후퇴시킨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비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않고 연료를 써서 소각하는 비율이 32.6%에 이른다.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되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플라스틱 제품의 분리배출이 잘 되도록 체계적인 수거·선별·재활용 기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 국가와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플라스틱 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



오서산 빗꽃길 버스킹 공연으로 물든다

제5회 오서산 빗꽃길 버스킹 공연 오는 6일 개최

홍성군의 빗꽃 명소로 자리잡은 광천읍 오서산의 답사리 중담주차장에서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흐드러지는 빗꽃과 함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제5회 오서산 빗꽃길 버스킹 공연'이 개최된다.

모니카·나타·아코디언·풍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민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핀 빗꽃길을 감상하러 오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천읍 하상주차장부터 오서산 입구까지 이어진 빗꽃길이 절경을 자랑하고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버스킹 공연이 개최되는 중담주차장이 나온다.

신경진 광천라이온스클럽회장은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오서산을 찾아 빗꽃과 버스킹 공연을 즐기며 봄날의 낭만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광천라이온스클럽(회장 신경진)에서 4월을 맞아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동규 광천읍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사를 준비하신 광천라이온스클럽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오서산과 광천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초대 가수 손빈아, 장예주, 신달래, 하이런, 김경아의 공연과 함께 루시드의 퓨전음악, 고전무용, 하

김정환 기자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문

Table with 3 columns: 발행/편집인, 전화/팩스번호, 구독료. Includes contact info for Kim Heung-jung.

등록번호: 대전가 00017 인쇄처: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의 향기



고안나 작 시낭송가·한국문화해의 교류협회 부산지회장

고안나 시인의 '詩넷물'

목련 연가

병상에 앉아 겨울 보시던 울 엄마
딸 온다며 붉은 연지 꺼내어
입술 바르시고 목련꽃처럼 환하게 앉아
창 밖 바람을 불러 들였다

울 때가 됐는데
차가 많이 밀리는 갑다
벌써 저녁때가 다 됐네
혼자서 묻고 답하고
그러다 슬며시 돌아누우셨다

이렇게 저렇게
머칠 만에 찾아가면
반가워서 울다가 섭섭해서 울다가
목련꽃 지듯 봄날은 가고

곱게 해라. 다 때가 있는 거다
마사지도 하고 파기도 해라
늘어 봐라. 얇아도 고운 때가 얇아
목련꽃도 한 때야

가고 없는 사랑을 부여잡고 엄마엄마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그옥한 그목소리
보이지 않는 얼굴은 어디서일까

시작 노트

4월은 죽은 땅에서 리얼리티를 피워내는 잔인한 달이라 했는가? 아니, 온 사방천지 무릉도원을 방불케 하는 봄꽃들 세상이다. 지천에 벚꽃이며, 개나리, 복숭아, 동백꽃들이 민발하여 어딜 가나 눈이 호사하는 풍경들이다. 목련꽃 피는 그늘 아래서 편지를 썼던 그리움의 시절도 이제는 옛말... 목련꽃 피는 계절이면 가고 없는 사랑을 부여잡고 엄마엄마 소리치고 싶은 절규의 계절이다.

시의 향기



백성일 작 '푸른하늘 아래서' 문학 비·한국문화해의 교류협회 경북지회장

백성일 시인의 '바람이었다'

꿈꾸는 노총각

강변 버들강아지 퍼리소리에
아지랑이 춤추고
산과 들도
부스스 기지개 펴는데
고집 센 한박눈은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목련 가지가지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건넌마을 노총각칠복이
화사한 얼굴에 반하여
방방이질 치는 가슴 쓸어안고
목련꽃 한 송이
두 손에 쥐어 들고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이라
속으로만 불러본다

시작 노트

봄이면 가장 먼저 화사하게 피는 꽃이 목련이다. 너무 고귀하고 숭고함이 강하여 자존심도 대단하다. 도도한 자기중심적이라 이르지 못하는 사랑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 노총각도 눈이 너무 높아 울해도 짝사랑만 하고, 민심을 위하여 또 이별 한다. 그래서 이름 하여 노총각이다.

시의 향기



송귀준 작

송귀준 수필가의 '삶의 생각 뒤안길'

꿀벌 속 세상보기

벌은 나는 게 아니다
돌팔매질 이다
허공에 풍알이다
벌통에서 썩 내리면 벌 된다

뒀다리에 노랑, 연분홍 가루 달기도 하고
배 볼록 꿀도 머금어 오고
어떤 늪 허릴없이 날개만 펼기도 하고
민둥민둥 거닐기만 하는 늪도 있다
그러다 낯선 객 기웃대면 냅다 침 한 대
줄 창노는 늪도

죽어라 꿀 따나르는 늪도
무질서 속의 질서다

하지만, 이모두 다
여왕벌 없으면 그냥 썩이다
알 낳는 일
육각 집 짓는 일
꿀 저장하는 세계한 것까지
여왕 손길 안 닿으면

꿀벌 보고 있으면 보인다
질서 속의 무질서
잡난 것발 못난 것발
웃는 민초, 우는 민초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4월 3일 수요일

대전투데이



CAFE 350



대전 서구 만년로65번길 23 1층 T: 042-482-3505